

과테말라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 1
2. 정치사회동향 /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5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7
2. 주요 산업 동향 / 11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20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 25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30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33
 - 대한수입규제동향 / 34
 - 관세제도 / 34
 - 주요인증제도 / 34
 - 지적재산권 / 35
 - 통관운송 / 39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42
- 외국기업 투자동향 / 44
- 우리기업 투자동향 / 47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47
- 진출형태별 절차 / 49
- 투자입지여건 / 51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 52
- 조세제도 / 56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58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특성 / 58
- 2. 물가정보 / 61
- 3. 바이어발굴 / 61
-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63
-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 64
-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66
- 7. 이주정착 가이드 / 66
- 8. 출장가이드 / 68

Guatemala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명	THE REPUBLIC OF GUATEMALA (현지어명 : LA REPUBLICA DE GUATEMALA)
위치	중미, 멕시코 바로 밑
면적	108,890Km ² (내수면적 460Km ² 포함), 한반도의 1/2
기후	열대성(단, 수도권 등 1,500M이상 고지대는 연평균 20-22도 내외의 상춘 기후)
수도	과테말라 (GUATEMALA CITY)
인구	13.0백만명 (2006년)
주요도시	Guatemala(320만명), Quetzaltenango(25만명), Escuintla(22만명) 등
민족(인종)	백인(5%), 라디노(혼혈, 40%), 인디오(50%)
언어	스페인어 (원주민은 23개 부족언어 사용)
종교	카톨릭(70%), 기독교(30%)
건국(독립)일	1821년 9월 15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OSCAR BERGER - 취임일 : 2004.1.14 - 임 기 : 4년 - 소속 정당: GANA 당
시차	한국보다 15시간 늦음

나. 경제지표 / 2006년 기준

GDP	U\$ 350억
GDP 성장률	4.6%
1인당GDP	U\$ 2,694
실업률	8.9% (2005년 기준)
물가상승율	6.6%
화폐단위	Quetzal (Q/께찰)
환율	1U\$=7.66Q (2007.2월 중순 현재)
외채	U\$ 39.6억
외환보유고	U\$ 40.6억
산업구조	유통업(24.3%), 농림수산업(22.1%), 교통·통신(13.0%), 제조업(12.5%) / 괄호안은 GDP 비중
교역규모	수출 : U\$ 60.3억, 수입 : U\$ 119.2억
교역품	수출 :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의류 등 수입 : 원자재(석유 포함), 소비재, 자본재 등 전반

다. 한국과의 관계

체결협정	무역통상협정, 문화협정, 봉사단파견 교환각서, 투자보장협정, EDCF차관협정,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협정, 범죄인 인도협정 등 7개 협정
교역규모	수출 : U\$ 546백만 수입 : U\$ 96백만 (2006년 / KOTIS 통계기준)
교역품	한국의 수출 : 직물(총수출의 39%), 경유(14%), 자동차(13%), 합성수지(6%) 등 한국의 수입 : 원당(총수입의 93.4%), 동스크랩(2.9%) 등
투자교류	한국의 과테말라 투자 : 70건 / 8,666만불 (2006.12월 기준)
교민	약 8천명 (임시체류자 3천여명 포함, 대부분 현지진출 봉제공장 종사자)

2. 정치 사회 동향

가. 독립, 독재 및 내전

과테말라는 1821년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였으나, 1944년까지는 대부분의 기간을 독재 체제 하에서 신음하였다.

1944~54년 기간 중에는 Juan José Arévalo 및 Jacobo Arbenz가 이끄는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 및 토지 개혁을 실시하였으나 미국계 다국적기업 United Fruit사를 포함한 대지주 계급 및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정부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54년 선거로 선출된 Arbenz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군부 쿠데타로 전복되면서 공산당은 불법화되고 좌익계 정당, 노동조합은 물론 심지어 중도파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됨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일부 군대가 가세한 좌익 게릴라가 탄생하였다.

쿠데타 이후 군부 및 민간 정부가 교대로 정권을 잡으면서도 게릴라 진압은 계속되었고 게릴라 역시 빈민층을 대상으로 세력을 확대하면서 정부군과 내전을 지속하였다. 1978~82년 중 정권을 잡은 Romeo Lucas García 장군 시절 특히 게릴라 진압작전이 치열하였다.

1982년 3개의 게릴라 부대가 URNG(과테말라 혁명군: 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로 통합되었으며 같은 해에 José Efraín Ríos Montt 장군(현 우파 FRG당 대선 후보)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으면서 시골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등 게릴라 진압 작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나. 민주 정치 회복

1983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Oscar Mejía Víctores 장군은 선거를 통한 민주 정치를 회복시키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 1985년 기독교민주당의 Vinicio Cerezo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군부를 통제하지는 못하였다.

1990년 기독교 개신교 신자인 MAS당(단결행동당) Jorge Serrano Elías 후보가 집권, URNG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1993년 의회 및 대법원을 해산하는 쿠데타를 시도하였지만 국내 및 국제적 반대에 직면, 하야하고 뒤를 이어 옴부즈만에 선출된 Ramiro de León Carpio가 Elías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으나 그 역시 각종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인권 보호에 별다른 공헌을 하지 못하였다.

다. 내전 종식 및 평화협정

1996년 1월 취임한 PAN당(국가전초당/Partido de Avanzada Nacional)의 Alvaro Arzu 대통령은 UN 후원하에 1996년 12월 URNG와 내전을 종식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평화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평화협정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1997년 1월 World Bank, IDB, 중미경제통합은행(BCIE), 미국, 영국, 스페인 및 독일 등으로 구성된 자문 그룹이 설립되었다.

평화 협정 체결 당시의 게릴라 부대 해체 및 군 병력의 1/3 수준(약 3만명) 감소 조건은 지켜졌으나 이외의 약속 이행은 지지부진하였다. 국가의 다언어, 다문화, 다인종적 특성 수용, 토착 인디오의 권리 인정, 사법부 개혁, 군부의 통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7개의 개헌안이 1999.5월 주로 도시 지역의 반대로 국민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평화 협정 이행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민간경찰이 세워졌으나 경찰의 인권유린은 끊이지 않았고 내전 기간중 잔학 행위자에 대한 면책 및 이에 따른 정부 불신도 지속되었다. 급증하는 흉악 범죄에 대한 경찰 및 사법부의 무능은 자경단의 설립을 부추기고 이들에 의한 피의자 폭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 출범한 FRG(공화전선/Frente Republicano Guatemalteco)의 Alfonso Portillo 정부는 2003년 10월 인권 유린으로 악명높았던 대통령 친위부대(EMP/Estado Mayor Presidencial)를 해산하기도 하였으나 극심한 부패 및 인권 남용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재계, NGO 등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마약 단속 미흡, 돈 세탁 연루 등의 의혹으로 對美관계도 악화되었다.

라. Berger 정부

군소 연립정당인 GANA당(대연합당/Gran Alianza Nacional) 후보이지만 재계의 강력한 지원으로 UNE당(희망당/Unidad Nacional de la Esperanza) Alvaro Colóm 후보를 누르고 2004년 1월 집권한 Oscar Berger Perdomo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곧 부정부패에 대한 사정을 실시하였다.

미국의 후원을 업고 전임 Portillo 정부의 고위 간부, 검찰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군부 고위자들의 비리를 파헤쳐 기소하였다. 파나마의 비밀 구좌를 통한 불법 거래 증거가 드러난 Portillo 전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에서 중의의원으로서는 면책 특권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받자 2004년 초 멕시코로 도피했다.

이와 같이 Berger 대통령은 부정 부패 척결에 노력하였으나 전임 정권과는 달리 의회 내 소수 정당으로 머물러 있어 개혁 정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화협정 이행 지원을 위해 과테말라에 파견된 UN 옵저버단은 내전 시 가혹 행위자에 대한 면책 상태 지속, 토착 인디오에 대한 차별 및 평화 협정에 명시된 사회복지 분야 정부 지출 미흡 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2004.12월 철수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2005.1월 UN 고등판무관실과 인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맺음에 따라 7월부터 UN 대표가 상주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2006년 6월에는 대만과 자유 무역 협정, 7월에는 미국과 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 여건도 호전됨에 따라 2006년에는 4.6%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마. 최근 동향

오는 2007년 9월 과테말라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치권은 점차 선거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1986년 과테말라에 민주 정치가 회복된 이후 나타난 하나의 현상은 집권 정당이 재집권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당간 이합집산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집권 정당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 집권당인 GANA당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당을 결속 시키지 못할 경우 결국 GANA당도 이러한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도우파 계열의 GANA당은 헌법상 Oscar Berger 대통령의 재출마가 불가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2006년 말 예비 선거를 실시하려 했으나 Bancafé 사태 및 예비 선거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주요 후보들이 사퇴함으로써 예비 선거가 무산 되자, 집행위원회 의결로 과거 2차례에 걸쳐 과테말라 시장 후보에 올랐던 Alejandro Giammattei 후보를 지명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청렴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그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Giammattei 후보는 2007년 6월 GANA당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도 좌파 계열 UNE당 사무총장인 Alvaro Colóm 후보는 매우 높은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3.12월 대선에서 현 Berger 대통령에게 2차 결선투표에서 패한 바 있는 Colóm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함에 따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GANA당을 포함한 타 정당 출신의 정치인들이 다수 그의 진영에 모여 들고 있다.

우파 계열의 FRG당은 쿠데타를 주도하여 1982~83년 중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수행한 바 있는 José Efraín Ríos Montt 퇴역장군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헌법 재판소가 2003년 대선 당시 Ríos Montt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종전의 판단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소치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FRG당은 대체 후보를 찾는 중이다.

이외에 각 군소정당들도 이합 집산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면서 올 9월의 각급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을 포함한 전국이 선거 분위기에 휩싸이는 상황에서 의회 기반이 취약한 현 Berger 정부는 2007년도 예산안의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등 급속히 레임덕 현상에 빠져 들고 있다. GANA당 소속 의원 및 시장들이 당을 탈퇴, UNE에 입당하고 있으며 장관들도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어느 당이 집권하든 2008년 1월 출범 예정인 새 정부 역시 의회에서 안정 적으로 다수 의석을 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현 Berger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 범죄와의 전쟁, 사회적 약자의 보호, 광업 및 수력 발전 등 국가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이해 관계 수렴, 중미자유 무역협정(DR-CAFTA)에 따른 농민 보호 등- 의 해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 Eduardo Stein 부통령과 Ibrahim Gambary UN 사무차관은 최근 과테말라 내 조직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위원회(Cómision Internacional Contra la Impunidad en Guate mala) 설립에 합의했다.

동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국가기관을 포함, 조직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각종 집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범죄자에 대한 소추권 배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엘살바도르의 중미의회 의원 3명이 과테말라 경찰 4명에 의해 피살되고 이들 경찰 4명 역시 교도소에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조직 범죄 단체가 경찰 내부에도 깊이 침투해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현재 대대적인 경찰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엘살바도르 내에서 과테말라에 대한 극심한 반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관광객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오는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한다'는 사항 이외에 우리 나라와 과테말라 간 특별히 현안으로 대두하는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양국 간 정부 차원의 협정체결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무상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협정체결 현황

- 무역통상협정 (1978.4월 발효)
- 문화협정 (1978.9월 발효)
- 봉사단 파견 교환각서 (2002.5월 발효)

- 투자보장협정 (2002.8 월 발효)
- EDCF 차관 협정 (2002.8 월 발효)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협정 (2003.12 월 발효)
- 범죄인 인도협정 (2006.2.20 발효)

나. KOICA 협력사업 추진현황

□ 과테말라는 KOICA 의 중미 지역 주요 지원대상국임.

□ 1991~2006 년 지원 실적: 총 9,124 천 달러 (연 평균 570 천 달러)

- 연수생 초청: 16 과정 181 명
- 전문가 파견: 7 분야 7 명
- 봉사단 파견: 3 분야 9 명 (간호, 컴퓨터, 전자공학)
- 협력의사: 1 분야 1 명 (내과)
- 개발조사: 1 건 (1994-98 광물탐사사업)
- 물자지원: 1,157 천불 상당
- 긴급원조: 2 회 (재난구호, 태풍피해 지원)
- 프로젝트: 7 건 (직업훈련 5 건, IT 2 건)
 - 제 1 아동복지원 건립사업 (1993-95)
 - 제 2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997-99)
 - 제 3 청소년직업훈련원 건립사업 (1997-99)
 - Zacapa 주 기술교육훈련원 건립사업 (2003-05)
 - 섬유기술훈련원지원사업 (2005-06)
 - 외교부 e-Library 구축사업 (2002-03)
 - 한·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2006-08) 등

□ 2007 년도 추진 계획: 총 2,250 천불

-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난민정착지원사업, 연수사업 등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연도별 거시경제 지표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인구	백만명	12.0	12.3	12.7	12.9	13.0	
인구증가율	%	2.6	2.5	2.4	2.4	2.5	
GDP	U\$억	225	249	280	317	350	
1인당 GDP	U\$	1,977	2,062	2,261	2,392	2,694	
GDP 성장률	%	2.2	2.1	2.7	3.2	4.6	
물가상승률	%	8.1	5.6	7.6	9.1	6.6	
실업률	%	9.5	8.9	9.0	8.9	-	
이자율	%	16.2	14.1	13.5	12.7	12.9	
교역 규모	수출	U\$억	41.6	44.6	50.4	53.8	60.3
	수입	U\$억	76.6	81.3	94.7	104.9	119.2
무역(상품)수지	U\$억	-35.0	-36.7	-44.3	-51.1	-58.9	
외환보유고	U\$억	23.7	29.2	35.3	37.8	40.6	
외채	U\$억	31.2	34.7	38.4	37.2	39.6	
연평균환율	Q:U\$	7.82	7.94	7.95	7.63	7.60	
해외이전소득	U\$억	15.8	21.1	25.5	29.9	36.1	

자료 : 과테말라 중앙은행, CEPAL, EIU Country Report 등

나. 경제 정책

1) 조세 정책

과테말라 정부가 1991년부터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고 1990년대 후반에는 인플레이션을 1자리 수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화 정책은 조세 수입 감소 및 이에 따른 재정 적자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 과테말라 정부의 조세 수입은 GDP의 10% 미만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중미 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낮은 세수로 인해 정부 재정은 허약해졌고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역대 정부가 조세 제도의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세제 개혁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조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96년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교육, 의료 및 치안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세수 확보가 아닌 자문그룹(1997년 평화 협정 이행을 위한 금융 지원을 위해 IDB 등 3개 국제금융기관 및 미국 등 4개국으로 구성) 차관으로 충당함에 따라 국제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1999년 재정 적자가 GDP의 2.8%에 이르게 되자 2000년 집권한 Portillo 정부는 단안을 내려 일련의 세제 개혁을 실시하였다. 2001년 8월의 부가세(IVA) 인상(10%→12%) 및 농업·상업에 대한 영업세(IEMA) 인상 등이 주요 조치들이다. 이로 인해 2002년도 세수액은 GDP의 10.6%에 이르렀고 재정 적자는 GDP의 1%로 낮아졌다. 그러나 민간 부문은 2004년 초 헌법재판소를 통해 IEMA 인상조치를 취소시켰다.

2004년 출범한 Berger 정부는 IEMA 인상 취소에 대응, 그 해 6월 다시 조세 개혁을 실시하여 법인소득세 인상, 알코올 소비세 복원 및 평화협정세(IETAAP: impuesto Extraordinario y Temporal de Apoyo a los Acuerdos de Paz / 평화 협정 지원을 위한 특별 잠정세) 신설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006년 8월에는 '조세 행정 강화를 위한 일반 규칙'(Disposiciones Generales para el Fortalecimiento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을 제정하여 조세 행정을 엄격히 감독하였다.

자문그룹은 Berger 대통령에게 평화 협정에 명시된 세수액의 GDP 12% 수준 확보를 위해 임기 중 재차 세제 개혁을 권유하고 있으나, 의회 내 지지 기반이 미약하고 이미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는 Berger 대통령 입장에서 12%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남은 임기 중 세율 인상 또는 세금 신설보다는 과세원의 확대 및 탈세 방지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 재정 정책

Berger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 감소를 위해 집권 이래 긴축 정책을 기조로 경제를 운용하였으나, 2006년도 정부 지출은 GDP의 1.7%로 전년도 1.5%를 초과 하였다.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수입이 증대되었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부 지출 역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La Aurora 공항 증축, 허리케인 Stan으로 인한 피해 복구, 고유가에 대비한 버스 전용도로 Transmetro 건설, 종합 경제 회복 정책 Vamos Guatemala 수행, 2006년 6월 학교 교사들에 대한 1회성 보너스 지급 및 범죄 억제를 위한 치안 유지 비용의 증가 등이 정부 지출 증대의 주된 요인이다.

2006년도 과테말라의 높은 경제 성장률 4.6%는 이러한 정부 지출 증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재정 적자는 결국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되고 탈세방지법 등을 통한 조세수입 증대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 지출 증대 및 무역자유화에 따른 관세수입 감소 등의 영향이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을 전망이다.

3) 금융 정책

과테말라의 인플레이션은 국제고유가 등의 원인으로 2004년 7.6%, 2005년 9.1%를 기록하였는데, 중앙 은행은 2006년 중반 정책 이자율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6.6% 수준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정부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 및 2007~2008년 중 예상되는 긴축 완화 등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 효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임금 정책

과테말라 정부는 최저 임금 협상을 위한 노동계와 재계의 협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2007년부터 최저 임금을 일방적으로 5%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 근로자 최저 임금은 1일 Us\$5.87, 비농업 부문은 Us\$6.03으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현재 시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시급제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검토되는데 노동부 및 INTECAP(직업훈련 및 생산성 연구소)은 관심 기업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면적 시행에는 법적·제도적 준비가 따라야 하며 노동조합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과테말라 경제는 2006년에 4.6%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율은 199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건실한 경제 성장을 보인 미국, 중국 및 인근 중미국가들의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및 대만과의 FTA 체결 등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 등 외부적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이 이러한 경제 활황의 주요인으로 간주된다.

해외거주 동포들의 본국 송금 증대,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 공여 확대 등으로 증대된 국내 수요 역시 경제 성장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사 시행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연도별 GDP 성장률

(단위 :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성장률	2.2	2.1	2.7	3.2	4.6

자료원 : 중앙은행

분야별로는 각각 29.5%, 12.9%, 9.8% 성장을 보인 건설, 교통·통신 및 광업 등 3개 산업이 특히 성장을 주도하였다.

건설 분야의 경우 허리케인 Stan 피해복구, 수도 외곽 순환도로 건설, 버스전용 도로 Trans Millenium 건설 등 정부가 발주한 대형 토목 공사가 성장을 주도하였으며 민간 부문 건설도 활기를 띠었다.

교통·통신 분야 성장은 핸드폰 시장의 급팽창이 주 요인이며 광업 부문은 건설 시장 호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설 기자재 공급을 위한 비금속광물 생산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산업인 농업 부문은 성장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1.8%에 머물렀는데 동 부문에서는 명암이 교차하였다. 설탕과 커피의 수출은 증대된 반면 바나나, Cardamom(생강의 일종)은 부진하였다.

2005년도 허리케인 Katrina 및 Wilma로 인한 미국의 설탕 생산 부진, 세계 최대의 설탕 수입국 러시아의 수요 증가, DR-CAFTA 및 對 대만 FTA 등이 설탕 수출에 양호한 여건을 제공한 반면 Cardamom은 중동 지역의 분쟁으로 對 중동 수출이 하락하였다.

분야별 GDP 성장률

(단위 : %)

구분	2005년	2006년
농림수산업	2.2	1.8
광업	-2.1	9.8
제조업	2.7	3.6
건설업	16.1	29.5
전기/수도	1.7	2.4
교통/통신	9.3	12.9
유통업	2.4	3.1
은행/보험/부동산	3.1	5.6
주택건축	2.5	2.1
공공행정/국방	-1.8	3.6
개인 서비스	3.5	3.8
계	3.2	4.6

자료원 : 중앙은행

2) 향후 전망

2006년도 과테말라 경제 성장을 가져 온 요인들은 향후에도 단기간 내에는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4%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DR-CAFTA로 인한 수출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증대 및 역내국간 세관 절차 완화 등으로 대외 수출은 지속 성장할 예상이며 해외거주 교민들의 본국 송금, 전통적으로 낮은 이자율에 따른 민간부문 신용공여 확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등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프라 정비에 따른 관광업의 성장도 예상된다.

그러나 최대 수출시장 미국의 경기 둔화, 2008년도 출범 예정인 신정부의 정책 등이 향후 경제 전망의 주요 변수이며 갑작스러운 외부적 충격이 있을 시 자체 흡수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과테말라는 선거 또는 외부적 충격에 따라 쉽게 긴축과 확대의 정책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매우 강한 편이다.

2. 주요 산업 동향

과테말라의 산업 부문은 식·음료 및 연초, 커피, 설탕 생산 등 1차 소비재 및 기초 의약품 생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멘트, 도금강판, 플라스틱 사출 등 다변화되어 가는 추세다.

'90년대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를 중심으로 종전 미국의 TUSA 807 관세정책을 활용하는 소위 MAQUILA(보세임 가공산업)가 봉제 업체 중심으로 활기를 보이고 있다.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한 과테말라의 제조업 부문의 성장은 특히 60~70년대에 급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년대의 11.3%에서 80년대에는 16.7%대까지 급성장세를 시현하였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성장요인은 당시 중미공동시장(CACM, MCCA;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내수부문도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순조로운 증가세를 보였고 공공투자의 확대와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과거보다 개선·확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부터 이러한 GDP에 대한 제조업부문의 기여도가 점차 15%대 미만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중반 이후 중미 공동시장을 비롯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으로 1차 가공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산업 생산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한 데다 낮은 생산성 및 품질, 수출능력 및 시장개척 능력의 열세, 국내시장 수요 증가의 한계성, 투자부족으로 인한 각종시설 노후화, 비효율화 등의 요인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점점 저하된 데 기인하고 있다.

2006년 말까지 발표된 각 산업분야별 생산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US\$ 천 달러)

분야	2004년	2005년	2006년
농림수산업	168,327.4	172,107.0	176,333.3
광산	3,700.7	3,623.2	4,191.4
제조업	92,646.9	95,106.0	98,057.3
건설	9,755.7	11,314.1	14,634.9
에너지	32,504.9	33,067.6	35,676.5
교통통신	1,319.2	1,343.7	1,387.3
도소매업	5,308.7	5,421.9	5,566.3
전체	733,021.9	756,190.1	791,066.0

정보원: 과테말라 중앙은행
주) 58년 불변가격

1) 농림수산업

과테말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림수산업이 총 GDP의 25%를 차지하고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의 56%를 흡수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최대 산업분야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옥수수, 바나나, 사탕수수, 까르다모모, 콩, 깨, 완두, 밀, 쌀,

생고무 등이며, 특히 이중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등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이다. 정부는 유망 농산품들을 개발 수출에 힘쓰고 있다. 과테말라가 개발한 농산품 브로콜리와 중국 완두콩은 수출에 성공한 육성 품종이었다.

과테말라정부는 농업부문이 고용부문 및 외화 가득 산업으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단계적인 농업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농업부문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기술개발 및 생산물의 수출시장개척, 관개시설확장 등 농업부문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지원 및 투자재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지원해 나가면서 중.소 농민의 영농육성을 위해 토지기금(FONATIERRA)을 설치하여 대지주의 유휴농지를 구매, 재분배하여 농민의 생계 수준 향상을 통해 경작면적 확대 및 생산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내.외국기업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권장, 수출용작물의 기업영농을 통한 농업생산기술 향상 및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과테말라 농업부분은 2005년 10월 허리케인 스탠으로 인해 국토의 30%의 농작물 피해를 보았다. 새우 양식업, 커피 산업, 채소 옥수수 등은 단기적으로 1천 3백만불 장기적으로 1억불의 피해를 보았으며 농작물 경작 시기 최고 1년까지의 손해를 보기도 하였다.

과테말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농림수산업이 총 GDP의 22.1%를 차지하고 수출의 51%를 차지하는 한편 경제활동인구의 56%를 흡수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최대 산업분야이다.

과테말라의 주요 농산물은 커피, 옥수수, 바나나, 사탕수수, 까르다모모, 콩, 깨, 완두, 밀, 쌀, 생고무 등이며, 특히 이중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등은 과테말라의 주요 수출품이다. 커피는 과테말라 제1의 수출품으로 총수출의 22.8%, GDP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탕수수와 바나나는 수출액의 7.8%, 5.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2) 광업

과테말라의 광업부문은 원유채굴 및 대리석 개발로 대변되며 이외 시멘트 생산을 위한 석회석 생산이 활발한 편이며 기타 희귀광물이나 JADE 등의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중이 크지 못하다. 과테말라정부의 광업정책도 전기한 세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 현실적으로 지하광물자원이 풍부한 편은 아니다.

과테말라 정부의 광업정책은 7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대서양 방향 이 사발(IZABAL)호수 부근 및 동북부 페텡주(州)인근의 유전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과테말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20억 배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05년 새롭게 빼땡지역과 끼체지역의 5대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되는 원유는 아스팔트와 액화 탄화 수소에 이용할 계획이며 San Marcos 지역에는 2004년부터 금광 채굴 작업을 시작하였다.

3) 에너지산업

과테말라의 에너지산업은 수력발전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기타 보존에너지 산업은 지열 발전 및 석유로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 농촌지역은 장작이 주요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고 2003년까지 전력 발전은 수력 대 화력이 50:50이었으며 2004년에 이르러서는 화력 발전이 65%까지 차지 하여 원유가가 오르는 시점에서 정부는 대체 에너지 자원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며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 다양한 정부 에너지 정책이 발표 되었다. 가장 많이 발표 되고 있는 미래 에너지는 풍력 발전소와 수력 발전소이다.

과테말라는 지형학상으로 잠재 수력발전 가용능력이 5,000MW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열발전도 70MW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현재 개발된 수력은 486.9MW로 총 발전 시설능력 795.9MW중 61.2%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화력 및 열병합발전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력발전 능력 중 66%는 CHIXOY발전소의 시설능력이며 전체 발전설비의 시설 가동률은 79.9%, 653.6MW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총 에너지소비량의 75%는 수도권에서 소모되고 있어 전 가계 중 전기 보급률은 35%가 채 안 된다.

과테말라정부는 발전설비부문의 민자유치 및 기존 정부독점산업해제 등을 통해 2007년까지 발전능력을 500MW이상 증가시키고 송전시설의 1,542KM 확장 및 275천 세대에 대한 추가보급 등 야심적인 에너지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재정의 빈약의 오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에너지부문에 있어서도 공기업 매각(EEGSA) 및 독점폐지를 통한 민간기업의 신규 진입을 적극 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환경산업

과테말라의 환경문제는 최근년도에 들어 계속 악화되는 상황으로 법으로 환경 오염을 규제하고 있으며, 환경위원회(CONAMA)를 운영하여 신규 건축의 경우 의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관찰, 감독하고 있다.

최근 환경교육진흥법과 환경이념증진 법 등을 제정하고 300여명의 교수진을 임명 하여 환경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민간 부문에서 환경과 관련된 두드러진 산업분야는 없는 상태이다.

5) 건설업

과테말라의 건설업은 '99년 기준 GDP의 2.5%를 점유하고 경제활동인구의 7.1%인 248,500명을 흡수하고 있는 주요 산업분야이다. '98년 중 공공, 민간부분의 건설 투자액은 8억 1,200만불이었으며, 시멘트 사용량은 약 187만 톤 규모를 나타냈다. 그러나 건설업은 경제침체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분야의 하나로서 '99년이 후 경제회복이 지연되면서 '99년 공공, 민간부문 투자액이 6억 3581만 불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다. 99년부터 계속 되건 건설 경기 침체는 2005년부터 가파르게 상승 하기 시작 하였다.

현재 과테말라 건설 경기는 GDP전체의 2%를 점유 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20%에 가깝다.

□ 특성

과테말라 정부는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현대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 재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부문별로 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1999-2001년 기간 중 총 22개의 도로건설 프로젝트에 195백만불을 투자하여 총 1,121KM의 도로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2000년부터 지방전력

확충공사를 추진 중이며, 시설낙후와 수용능력 부족으로 물류 한계를 보이고 있는 QUETZAL 항구와 SANTO TOMAS항구의 현대화를 위해 민간양호 계획을 발표하였다. 한편 현재 수용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과테말라시티의 라아우로라 국제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에스펜 플라에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2004년 신 정부 발족 이후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에너지광업 부에서는 약 3.5억불 규모로 멕시코-과테말라간 가스관공사를 추진 중이며, 그 외에도 정유소 추가건설(약 5억불), 품질관리연구소 건설 등 7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과테말라시티는 시내 6,5,1번 구역 내 약 36개 고가도로 건설, 시티 순환고속도로건설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과테말라 평화기금(FONAPAZ)에서는 남부농업기술교육기관 건설 등 내전극심 지역에 대해 2007년 기간 중 약 20개의 주요 건설프로젝트를 추진 또는 구상 중에 있다.

2006년 말에는 과테말라 시티에 TRANS METRO (버스 전용 차선)공사를 완공하여 교통문제가 해결되나 하였으나 여전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과테말라 시 외각 도로 건설 산업이 추진 중이며 대만, 일본 그리고 다른 외국 기업에서 과테말라 인프라 완성을 위해 도로건설에 지원 중이다.

□ 전망

'99년 들어 태풍미치의 피해와 국제적인 외환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으로 은행의 신용 공여가 위축되면서 건설경기가 전년비 약 40%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들어서도 상황은 더욱 악화돼 은행대출 중단과 고이자율 등으로 신규투자가 어렵고 도산업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 건설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중유동성 확대와 이자율 인하, 은행의 대출 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공공부분의 경우 정부에서 조세협약을 통해 세수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나 뿌르띠요 정권 출범 이후 부패와 경기침체로 좀처럼 경기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004.1.14일 출범한 베르체 정권 사회 인프라확충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2005년 들어와서는 민간인 건설 투자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며 Multiproyectos와 같은 건설 투자 회사는 2억불 규모의 중미 최고 대형 유통상가를 건설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국내 아파트 단지 건설뿐 만 아니라 중미 다른 나라에 까지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시청을 중심으로 하여 고가 도로 건설, 도로 보수 확장 공사 사업을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독점 개발법을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 사업도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2007년 들어서서는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곧 북부 횡단 도로 및 수도권 외곽 도로 건설에 7억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돼 약 12.6%의 건설 경기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으며 대만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많은 대만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6) 식품산업

과테말라는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식품가공산업은 타 산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담배(Rubios, Belmont등), 과자, 통조림, 빵, 치즈, 햄, 위스키(Old Friend 등), 럼(Venado), 맥주(Do-rada, Gallo, Monte Carlo 등) 등이다.

1969년에 설립된 Conservas Y alimentos S.A.사는 통조림 등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미국, 중미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며, 1976년에 설립된 Helios사와 Gama사는 과자류, Industria Nacional Alimenticia S.A.사는 케익과 빵류 등을 생산 수출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최근 들어서 과테말라 내에는 음료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맥주, 음료수분야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여 더욱 치열한 경쟁을 낳고 있다. 식료품 가공 산업은 최근 전통 상품(팔죽, 빵)을 미국으로 캔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향이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의 Gallo맥주 업체도 미국 진출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또한 국내 제 1위 치킨 체인점인 Pollo Campero도 미국에 20개 지점을 확장하여 성공하였으며 2005년 말에는 5년 계획 500개 매장 설립을 목적으로 중국에 진출할 예정이다. 2006년 6월에 개최된 중미 국제 산업 박람회에는 400개 업체 중 절반가량의 회사가 대부분 식료품 가공 업체로 참석하여 식료품 가공업의 강세를 드러내었다. 2006년 2월 현재 과테말라 치킨 체인점 1위인 POLLO CAMPREO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오픈하였으며 3월 달에 상하이 점에 오픈 예상 된다. 또한 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식품 포장 가공 산업의 엄격한 규율로 인해 양질의 포장재 제품 수요도 증가 할거로 예상 되고 있다.

7) 의류, 섬유산업

□ 현황

과테말라에서 비교적 활발한 산업분야의 하나로 대미 수출을 위한 섬유봉제업체가 다수 진출해 있다. 현재 약250개 업체가 활동중인 것으로 집계되며 이중 약58.8%인 약 160개 업체가 한국의 투자진출업체 또는 현지 자생업체이다.

의류봉제업계의 직접 고용인원은 약 72,000명으로 추산되며,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91명으로 중미 4개국 평균보다 낮아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미 내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규모에 비해 대미 의류수출에서 인근 온두라스나 엘살바도르에 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기업의 투자부족, 자유무역지대 미흡, 세관의 복잡한 절차와 관련법규의 잦은 개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의류 및 섬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며, 대미 섬유수출액은 2006년 기준 약 13.94억불 규모를 나타냈다. 동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인구수는 78,000여명으로 추산되며 310여 개의 봉제 의류업체 이외에 세탁 7개사, 부자재 75개사, 직물 25개사, 창고 12개사, 자수 32개사, 재단 4개사, 원사 21개사, 관련기계 18개사, 포장 19개사 등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특징

섬유봉제업체의 약 58%는 미국에서 섬유 원부자재를 들여와 보세임가공후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807방식이며, 나머지는 자체 제3국 원부자재를 소싱하여 재단봉제 수출하는 FULL PACKAGE 방식이다. 한편 과테말라 자체내의 섬유사, 직물 및 부자재 생산은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과테말라는 미국의 16번째 섬유제품 수출국으로서 2000년 현재 미국시장의 2.16%를 점유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카리브 연안국 수출액의 8.5%를 점유하여 5위, 중미국가 수출량의 13.4%를 점유하여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Woven, Knit셔츠와 드레스, 바지, 남성 및 여성정장, 잠옷, 파자마, 스커트 등으로 현재 과테말라 비전통 수출상품 중 최다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주요 봉제업체들은 과테말라시티의 Villa Nueva지역과 시 외곽인 San Lucas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다.

□ 전망

과테말라의 섬유봉제산업은 주요 외화수입원으로서 국민총생산에도 기여하는 한편 고용창출 면에서도 주요한 산업분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섬유산업을 현재의 단순 임 가공 및 봉제에서 탈피하여 원사, 직물, 부자재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생산, 수출할 수 있는 Full Package를 목표로 섬유 원부자재 생산업체의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미와 카리브 연안국산 의류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미국 CBI강화법안(CBTPA)이 2000.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과테말라의 섬유봉제 업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관세혜택이 주어진 의류는 미국산 원사나 원단만으로 현지 재단 또는 봉제된 의류로 제한되었으며, 현지 편지의류의 경우는 제한적인 쿼터범위 내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807베이스의 의류생산은 활기를 띄는 반면 제3국 원자재를 자체소싱후 봉제 수출하는 FULL PACKAGE 생산에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2005년 1월을 기점으로 전 세계 쿼터제 폐지로 중미국가들과 과테말라는 중국의 침공으로 사실 미국 의류 시장을 중국에 많이 뺏기게 되었다. 봉제업체들과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차별화된 상품 개발, 빠른 납기, 고품질, 서비스 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마지막 희망으로 DR CAFTA(미국-중미 자유무역)을 통한 중미 봉제 연합 전선을 중국을 상대로 준비하고 있다.

2006년은 중국 영향으로 약 5백만다존의 오더가 감소하였으나 의류 수출로 인한 외화 수입은 오히려 14% 증가하였다. 2005년 10월 현재 의류 수출로 인한 외화수입은 4억 9천만 불에 이르렀다. 오더가 감소하여 수출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부자재 첨가 비와 국내산 원단 사용 때문이었다.

8) 생활용품산업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주요 생활용품은 가정용 플라스틱 용기 류, 목재가구, 철제용기, 신발(구두, 장화), 크리스털제품, 도자기, 종이, 판지 등으로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9) 석유화학산업

과테말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탐사 및 시추, 정유, 가공, 수출입 및 운송 등으로 구성된다. 동분야의 직접 고용 인구 수는 약 3,000명 정도이며 운송, 건설, 금융 등으로 간접관련된 고용인구는 약 10,000여명으로 추산된다.

98년 이후 하양세를 보이던 석유화학산업은 2000,2001,2002 그리고 2003년 동안 상승하다 2004 그리고 2005년 동안 하양 하였다. 지난 2006년에는 15.7%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10) 제약. 의료산업

과테말라에는 현재 약 15개의 제약회사가 활동 중이며, 연관분야로서 수개의 포장, 라벨링 업체 등이 존재하고 있다. 1940년에 설립된 Laboratorios Bonin사(종업원수 150명)는 약 64개 제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1938년에 설립된 Laprin사(종업원수 155명) 등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들로서 내수시장은 물론 중미, 파나마, 도미니카 등지에 수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Abbot, Diprofarm, Iprofasa, Warner Lambert, Basf Guatemala, Bristol-Myers Squibb등 다국적 제약회사의 에이전트 오피스가 의약품 수입판매하고 있다. 최근 과테말라 시장에는 유사 약품 시장이 멕시코에서 들어와 2004년 100% 성장을 이루었다. 현재 국내 유사품 약국은 약 70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미 다른 나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구입 공개 입찰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여 한층 국내 제약 회사들의 제품 생산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11) 철강. 금속산업

과테말라의 철강. 금속산업 시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철강. 금속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동 분야에는 건물, 교량 등의 건설을 위한 철강건축자재나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몇 존재하는데 철강건축자재는 Aceros Arquite-ctonicos사(종업원수 150명)와 FACODA사, 알루미늄 제품에는 Conex, S.A.사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외에도 가내공업 형태로 철제 의자, 책상, 침대, 스텐드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12) 일반기계산업

과테말라의 기계산업은 미미한 수준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기계류는 제과용 기계(가스오븐류) 정도로 파악되며 동 분야에는 약 10개사가 생산, 정비 등에 종사하고 있다.

13) 자동차산업

과테말라 내 자동차 조립생산 공장은 전무한 상태로 부품을 포함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과테말라의 차량등록대수는 2006년 현재 1,008,303대 이다. 현재 과테말라 자동차 판매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도에는 15.3% 2005년도에는 50.5% 2006년 도에는 17.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과테말라 차량 판매급증은 시중은행들의 자동차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크레딧 옵션 제공 및 미국산 중고차에 대한 낮은 관세 때문이다.

신차 기준 브랜드 별로는 토요타가 2006년 동안 9700대가 판매되어 25%를 점유 하며 현대차는 3200대로 4위 이다.

14) 선박. 항공산업

과테말라내 선박. 항공산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과테말라에서 생산되는 선박은 소형 보트류로서 생산지역은 북쪽 이사발주 호수, 태평양연안, 아티플란 호수 인근지역이다. 과테말라에 주로 수입되는 선박은 최대 8인승 쾌속정이며 항공기는 최대 20인승 이하의 소형항공기류이다.

15) 전산업

과테말라내 가전산업은 전무한 상태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6) 산업용전기기기산업

과테말라 내 업소용 냉장고 이외에는 생산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소용 냉장고 생산업체는 Fogel Refrigeradores사와 IMCA사 정도이다.

17) 컴퓨터산업

과테말라내 컴퓨터 생산시설은 없고 정비 또는 수리정도에 그치고 있다. 컴퓨터보급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97년에 컴퓨터 사용자수가 2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터넷 이용자수는 아직 약 3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18) 정보통신산업

과테말라내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없고 수입에 의존하며, 다만 수리, 보수업체들만이 존재한다. 과테말라의 정보통신시장은 자유화되어 있으며, 유선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등에 많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선전화는 현재 90%이상을 국영전화공사(TELGUA)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COMCEL, TELEFONICA, TELNOR 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무선전화서비스 업체는 Telgua(국영통신회사/2006년 말부터 CLARO사가 인수), Comcel, telefonica사 등, 유선전화는 Telgua, Guatel, Comcel 등이 있다. 또한 국제전화 서비스는 orld Exchange, AT&T, MCI 등, 인터넷 서비스는 Cybernet, Infovia, Comtech, Comcel, Concyt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1991년이후 COMCEL사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독점 공급하던데서 탈피, 1999년 4월부터 이동통신시장 자유화 조치가 실현됨에 따라 국영전화공사(TELGUA) 산하의 PCS와 스페인계 TELEFONICA사가 디지털 CDMA와 GSM방식의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사에서는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보 통신 산업은 특히 2000년 이후 중미와 과테말라에서 가장 성장력이 빠른 분야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2006년 현재 국내에는 3개 이동 통신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TELGUA, TELEFONICA, COMCEL이다. 핸드폰 이용자 수도 300만 명에 달하였고 고정 전화선 수도 145만선을 돌파하였다. 중미-미국 자유무역 시대가 열리자 외국의 정보 센터, 콜 센터들이 계속하여 과테말라에 진출하고 있으며 과테말라를 중미 시장의 TEST용으로 측정하고 있다.

19) 교통. 관광업

□ 현황

과테말라는 광대한 마야문화유적(TIKAL지역) 및 식민지시대 문화유적(ANTIGUA지역), 원주민 문화 및 자연풍물(ATITLAN지역, RIO DULCE지역)등 역사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이 겸비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로서 관광업은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관광객수와 외화수입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현재 관광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85,700명이며 약 20여개의 여행사, 175개의 호텔(과테말라 시티에 32개), 수도에만 약 100여개의 식당이 소재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Budget, Avis 등 14개의 렌트카회사, 5개 택시회사가 있으며 '99년에 과테말라시티와 이사발주의 Puerto Barrios를 잇는 철도가 재개통 되었으며, 한편 국제공항으로는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 국제공항과 마야유적지인 빼텐주에 "산타엘레나" 공항이 소재하고 있다.

□ 특징

과테말라는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약 40여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한편 CNN 네트워크, TRAVEL 채널 등 방송매체 및 Travel Agent, Archeology 등 잡지, New YorkTimes와 Excelsior de Mexico 등 신문매체, 각종 회의 및 컨벤션 등을 통해 과테말라의 관광자원을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어 새로운 유망관광지로 자리매김 받고 있다.

과테말라 관광청(INGUAT)은 관광객 지원프로그램(Asistencia al Turista)을 마련하여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과 치안제공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광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FTA 협상, 99년 쿠바와의 외교관계 재개 등을 통해 중미, 멕시코, 카리브간 트라이앵글을 형성,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전망

2007년에도 관광객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정부의 관광수입 목표 550만불목표도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약 5,000개의 호텔객실을 확충하는 한편 과테말라 평균 체류일수를 8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

마야유적지인 빼텐주에 도로포장과 호텔, 식당을 증설하는 한편, 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를 잇는 마야 루트(Ruta Maya)를 개발하여 마야문화유적지 관광객을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태평양 연안에 호텔을 증축하고 알따 베라빠스나바하 베라빠스 등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2004은 처음으로 과테말라 관광객 유치 연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중미 개발 은행(BID)은행은 중미 전체에 약 4억불의 관광 차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2005년 5월에는 마야 문명의 유적지인 TiKaI지역에 미국의 국제 항공사 Continental이 직접 운행을 시작하였다. 2006년의 관광 수입은 6억 5천만불에 달하였다. 과테말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프로그램에서 6개 분야에 걸친 핵심 전략과 과테말라의 3가지 장점 곧 관광, 상업, 중미, 카리브해 물류 중심지 중심을 잘 살릴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06년의 관광객 숫자는 120만명을 넘어섰으며 관광으로 인한 외화수입은 7억 8천만불을 기록하였다. 2007년은 1백 30만명의 관광객을 예상하고 있다.

20) 유통업

화물운송 및 처리업체로 약 10여개사가 있으며 국제 수출입의 경우 통관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표적인 업체는 Caniz(1937년 설립, 종업원수 100명), Intermud(1983년 설립, 종업원수 75명), Cropa Panalpina 등이다.

창고업체로는 약 16개사가 있는데 화물의 보관, 관리, 유통, 매매 등은 물론 화물을 담보로 신용을 제공하기도 한다. 주요업체는 Almaguate, AlmacenadoraAldosa, Almacenadora del Pais 등이다.

이외에 항공운송업체로서 American Airlines, Continental Airlines, DeltaAirlines, United Airlines, Taca, Copa, Mexicana, Aerovias 등이 있으며, 우편취급업체로는 DHL, FedEx, Jetex, UPS, TNT International Express, IBC 등이 있다.

소매유통업체로 대형 슈퍼체인이 5개, 대형 쇼핑센터가 1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 재래시장도 활발하다. 다만 최근에는 슈퍼마켓이나 대형 쇼핑센터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21) 금융업

일반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 금융산업의 발전 정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다. 현재 금융 기관으로는 35개의 은행(이중 2개는 외국 은행)과 20개의 금융 중개 기관(Intermediario Financiero), 8개의 외환매매기관(Casa de Cambio), 12개 보증 기관(Afianzador), 17개 보험 기관(Asegurador)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외에 은행과 연계하여 화물의 보관 및 신용 공여 기능을 하는 창고 금융기관(Almacenadora)이 있다.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특히 '98년 이후 유동성이 악화된 상태로 직접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외국은행이나 미국내 소재 은행을 경유하여 개설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22) 문화산업

과테말라의 문화상품은 우이필, 조각, 옥석, 목제품 등으로 대부분 가내 수공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원주민 인디오 여인들이 손으로 직접 짠 우이필(브라우스), 수직 태피스트리, 테이블보 등이 많이 생산되며, 그 외에도 마야문화의 문양으로 조각한 목각, 석재, 금속 인형과 가면, 테라코타 등과 과테말라 옥석(jade)을 가공하여 만든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과 인형, 마스크 등이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미-중미5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미국가들이 무역을 크게 좌우할 미국과 중미국간의 자유무역협상이 2003년 1월부터 시작하여 총9차례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결말에 이르렀으며 2006년 3월 1일부터 엘살바도르, 4월1일 니카라구아, 혼두라스, 7월 1일 과테말라 순으로 발효 되었다. 단 코스타리카는 여전히 발효 되지 않고 있다. 중미각국은 이번 협상의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요 협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공산품의 80%는 중미국가들에게 무관세로 즉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미가 원산지인 거의 모든 공산품과 소비제품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머지 20%는 5년,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미국산 농, 축산물의 50%는 무관세로 중미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품목은 쇠고기, 면제품, 밀, 포도주, 콩 등이다. 나머지 50%는 1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무세화 된다.

중미진출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분야인 섬유분야는 중미가 원산지인 원부자재는 즉시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역내(미국 및 중미) 공급이 절대 부족한 원단에 대해서는 제3국산 원단을 사용하여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역내 공급이 부족한 원단의 범위 및 종류는 미국, 중미국의 업계의 자문을 받아 정하기로 하였다. 기대를 모았던 TPL (역내 봉제, 제조된 의류의 경우 쿼타범위내에서 제3국산 직물, 원사 수입에 특혜관세 부여)은 니카라과에 대해서만 (연간 1억 S/M 범위내) 허용키로 함에 따라 중미 봉제산업 진출 판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NAFTA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산 직물을 사용한 일부 의류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부여토록 함으로써 북미와 중미 섬유산업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치열해지는 세계시장의 경쟁에 대비토록 하였다.

양측의 노동문제와 관련 중미국가들은 미국과의 노동법 위반시 최고 1,500만불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중미4국과 미국간에 합의된 내용은 2004년 1월 13일 협상결과가 문서로 발표되었다. 미국-중미국간 동 협정은 2005년 7월 미국 국회의 승인으로 체결되었다.

98가지 DR-CAFTA 종목별 세부 관세 협정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종목	미국→과테말라	과테말라→미국	예
1	살아있는 동물	15년 이후 관세 면제	즉각 관세 면제	칠면조, 소, 닭, 오리 등
2	육류	5,10,15년 이후 관세 면제	즉각 관세 면제 소고기만 15년후	
3	해산물	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바다고기, 게, 홍합 등
4	우유 및 우유 관련제품	5년, 15년 이후 면세	20년 이후 면세	치즈, 우유, 등
5	기타 먹지 않는 육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고기뼈, 털 등
6	식물, 꽃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	채소, 건강 식물	5,10,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브로콜리, 버섯, 토마토 등
8	과일	5,10,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사과, 배, 귤 등
9	커피, 차	5,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10	곡물	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즉각 면세	쌀, 밀 등
11	곡물 가공 식품	10,12,15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밀가루 등
12	씨, 기름 식물	10년 이후 면세	15년 이후 면세	콩, 해바라기씨 등
13	주스, 식물성 주스	즉각 면세	즉각 면세	과일주스
14	기타 식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대나무 등
15	식물, 동물성 기름	10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16	육류, 해산물 가공식품	5,10,15년 이후 면세	10년 이후 면세	참치, 게맛살 등
17	설탕	5,10,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설탕, 사탕 등
18	카카오	5,10년 이후 면세	쿼터제	
19	곡물 가공 및 빵	5,10,15년 이후 면세	쿼터제, 20년	
20	과일통조림 및 주스	5년, 10년 이후 면세	5,15년 이후 면세	
21	식품 가공 제품	5,10,15년 이후 면세	아시스크림 쿼터제, 20년 이후	녹는커피, 수프, 기타 식품
22	주류, 음료수	맥주 즉각 해제, 포도주, 양주, 미네랄 등 5년- 15년 이후 면제	미네랄, 맥주 쿼터제, 그외 20년	맥주, 소주, 식수 등
23	동물 사료	5-10년 이후 면제	즉각 면제	
24	담배	15년 이후 면세	15년 이후 면세	
25	소금, 유황, 돌 등	10년 이후 면세	즉각 면세	
26	광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시멘트, 광물
27	원유, 석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원유, 가스 등
28	무기화학 원료	10년 이후	즉각 면세	염소, 요드 등
29	유기화학 원료	5,10년 이후	즉각 면세	벤졸, 툴루엔 등
30	약품	5년 이후	즉각 면세	약품, 비타민 등
31	비료	10년 이후	즉각 면세	
32	페인트 종류	10년 이후	즉각 면세	
33	화장품, 향수	5,10년 이후	즉각 면세	
34	비누	10년 이후	즉각 면세	
35	접착제	5-10년 이후	즉각 면세	
36	폭발물	10년 이후	즉각 면세	
37	사진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영화필름, 사진필름
38	기타 산업용 화학물	5,10년 이후	즉각 면세	흑연, 콜타르 등
39	플라스틱 및 제품	5-10년 이후	즉각 면세	Pvc 및 플라스틱
40	고무 및 제품	5,10년 이후	즉각 면세	
41	가죽	5,10년 이후	즉각 면세	
42	가죽 완제품	10년	즉각 면세	
43	모피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4	목재, 및 목제품	5-10년 이후	즉각 면세	
45	코르크 및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6	광주리 및 짚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7	목재 펄프	즉각 면세	즉각 면세	
48	종이	5,10년 이후	즉각 면세	
49	산업 인쇄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앨범,달력 등
50	비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1	양모	즉각 면세	5-10년 이후	
52	면	즉각 면세	10년 이후	
53	아마포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4	합성 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5	불연속 합성 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6	삼지,접착섬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7	양탄자	즉각 면세	즉각 면세	
58	특수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자수원단 등
59	방수 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0	모든 종류 니트원단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1	의류 완성품(니트)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2	의류 완성품(우븐)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3	기타 의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4	신발	10년 이후	10년 이후	
65	모자류	10년 이후	10년 이후	
66	우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7	솜털,깃털	즉각 면세	즉각 면세	
68	석고,돌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69	세라믹	10년 이후	즉각 면세	
70	유리	10년 이후	즉각 면세	
71	보석류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2	주물,철,철강	10년 이후	즉각 면세	철근,철사등
73	철제 가공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못,볼트 등
74	동 및 동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75	니켈 및 제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6	알루미늄	5-10년 이후	즉각 면세	
78	납	즉각 면세	즉각 면세	
79	아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0	주석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1	기타 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2	철 연장 기구	10년 이후	즉각 면세	
83	기타 철 제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84	산업용 기계	10년 이후	즉각 면세	보일러,컴프레셔 등
85	전기용 기계	10년 이후	즉각 면세	모터,발전기 등
86	기차,전철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7	자동차	10년 이후	즉각 면세	
88	비행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89	선박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0	안경,사진기등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1	시계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2	악기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3	무기,탄약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4	가구,형광등	5,10년 이후	즉각 면세	자동차의자,형광등 등
95	장남감,스포츠 용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96	각종 제조 용품	10년 이후	즉각 면세	약통,연필,칫솔 등
97	골동품	즉각 면세	즉각 면세	
98	미국 고유 제품			

- 위의 자세한 항목별 협상 거래 사항을 보면 주요 인기 품목은 미국에서 당장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특히 고무 및 생산제품, 유리, pvc등은 제 3세계국 어떤 나라의 원자재를 쓰더라도 미국 수출 관세가 즉각 면제 받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서 현지 중미에 진출하지 않고 단지 원자재만 수출하려고 할 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섬유 의류 제품은 100% 즉각 무관세 규정으로 협상되었으므로 이 조건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중국과 아시아에 뺏긴 오더를 회복하고 중미 봉제산업의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다.
- 한국 기업으로써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보다는 중미나 과테말라에 진출하여 미국과 중미 타 지역 수출 제조 업체로서의 도전도 가능하다. 특히 한국과 중미 어떤 나라도 현재 FTA가 맺어져 있지 않으며 중미 시장이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중미는 한국에 있어서 주변시장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5-10년이후면 미국과 중미간에는 관세 장벽이 거의 없어지게 됨으로 미국과 중미가 하나의 경제 통합 단계로 들어설 가망성이 많다. 이럴 경우 미국의 비싼 임금보다는 중미의 저렴한 임금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도 가능하다. 만약 자유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세 지역(ZONA FRANCA)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면 이것도 가능하다.
- 미국과 중미 5개국,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은 사실 한국에서 보면 제 3자들의 협상이다. 그러나 이 협정의 배경과 이면에는 아시아 곧 중국, 인도를 비롯한 거세계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방어 의 차원이 높으므로 한국도 자칫 방관자적인 자세로 임할 때 중미와 미국 시장에 대한 점령도를 빼앗길 가능성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북, 중미를 타겟으로 삼는 한국의 기업들은 심도 있게 DR-CAFTA를 분석하고 최대한 기회를 이용하고 포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인근 대만은 과테말라와의 자유 무역 협정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다. 대만의 대부분의 주력 수출 산업은 화학 재료, 염료, 페인트, 플라스틱 등 미국과의 자유 무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진출되는 기업이 많이 있다.
- 한국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CAFTA이후 특히 미국이 강세를 뛰게될 품목 예를 들어 정보 산업 상품(즉각 100% 무관세 수입): 핸드폰, 컴퓨터, 케이블,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상품, 비디오 등과 의약품, 과학장비, 건설장비, 전기 자재, 비료, 냉장고, 식품 가공 기계 등에서 광장한 강세를 들어낼 것으로 보임으로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한 대책과 방안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
- 이외에도 대부분의 인기종목을 보면 미국에서 당장에 중미 시장에 무관세를 진출하지 못하도록 향후 5-10년정도까지 묶어두고 있는 품목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사전에 완전한 미국시장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싱가포르, 호주, 칠레의 경우를 볼 때 자동차 부품, 가구, 기계류, 정보 산업 상품, 육류 등은 미국이 자유 무역 후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는 품목이므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 중미경제 통합 협정

이 협정은 1961년 체결된 이후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하였다.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협약 되어 있으며, 주 수출품목은 식품, 음료, 화학품, 섬유이다. 수입품은 식품, 음료, 화학품, 플라스틱, 철 등이다. 현재까지 중미 관세 통합은 94% 진척되었으며, 세관 통합 건도 진척 중이나 커피, 석유, 설탕 등의 코스타리카 자체 관세 문제로 인해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자유무역협정

이 협정은 2001년 체결되었으며 과테말라는 동물성, 식물성 식용유, 소고기, 식품, 음료, 플라스틱, 섬유 등을 수출하는 내용이며 수입 품은 식품, 음료, 플라스틱, 화학품, 철, 기계, 전기제품이지만 매년 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

이 협정은 2001년에 맺어지게 되었으며 과테말라 주 수출 품목은 설탕, 배터리, 비누, 세척제, 목재, 박스, 플라스틱, 섬유 등이며 주 수입품목은 식물성, 동물성 식용유, 화학 제품, 섬유 등이다.

□ 파나마와 쌍방 특혜 및 자유 무역 협정

이 협정은 1975년에 체결되었으며 과테말라 주 수출품목은 화학제품, 기계, 가전, 채소 등이며 주 수입품목은 화학제품, 섬유, 기계, 가전 제품 등 주로 공상 품이다. 과테말라는 대 파나마와의 무역 거래에 적자를 기록 하고 있다.

□ 대만과의 자유무역 협정

2006년 7월 1일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발효 날짜와 같은 날 발효 하였다. 이 협정은 대만업체의 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자유무역 협정으로써, 과테말라는 수출 품목 중 약 6천 개의 품목이 제외 되었으며 과테말라 설탕 또는 설탕에서 파생된 제품 무관세 품목으로 분류 과테말라 설탕 수출에 많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무역 수지

과테말라의 2006년도 수출은 60억 달러, 수입은 119억 달러로 59억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적자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적자폭의 증가는 주로 국제 고유가 현상에 기인하고 있으며 각종 전자 제품 등 소비재 수입 증대도 주 요인이다. 나라별로는 제1의 교역 파트너인 對 미 무역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 수지

구분	단위	2002	2003	2004	2005	2006	
교역 규모	수출	U\$억	41.6	44.6	50.4	53.8	60.3
	수입	U\$억	76.6	81.3	94.7	104.9	119.2
무역수지	U\$억	-35.0	-36.7	-44.3	-51.1	-58.9	

자료 : 과테말라 중앙은행

나. 수출 동향

1) 국별 수출동향

과테말라의 대외 수출은 미국 및 인근 중미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6년 7월 1일 DR-CAFTA 발효로 향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04년도 과테말라의 對 미 수출은 총 수출의 53%에 이르렀으나 2005년도 50%, 2006년 46%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5년부터 MFA 종료에 따라 중국산 의류의 미국 시장 진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과테말라산 의류의 對 미 수출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근 중미국에 대한 수출은 비중이 조금씩 증대하고 있다. 2003년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4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 수준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27%를 기록하였으며 DR-CAFTA에 따라 향후로도 지속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은 2006년도 과테말라의 수출 대상국 제10위를 기록하였는데 주로 원당의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별 수출동향

(단위: US\$백만)

구분	2004	2005	2006
총계	5,036.4	5,380.8	6,025.2
미국	2,660.4	2,686.4	2,781.9
엘살바도르	573.9	653.0	699.6
온두라스	359.4	394.0	481.6
멕시코	208.4	215.8	354.8
니카라과	177.5	213.2	235.3
코스타리카	182.1	205.2	227.8
캐나다	59.8	73.3	99.9
파나마	125.7	80.5	98.3
네델란드	41.8	47.4	87.3
한국	39.5	8.4	84.2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품목별 수출동향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카르다몸(Cardamom: 생강의 일종)은 과테말라의 전통적인 4대 수출 품목이다. 1996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원유를 개발·수출함에 따라 5대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은 2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2006년도 사탕수수 수출액은 3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다. 2005년 허리케인 피해에 따른 미국의 설탕 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 수요 확대, 세계 최대 설탕 수입국 러시아의 수요 증대, 카리브지역 사탕수수 생산 국가에 대한 EU 보조금 지원 축소 및 이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 차량 연료 에탄올 생산을 위한 아시아 및 브라질의 사탕수수 수요, DR-CAFTA 및 對 대만 FTA 발효에 따른 기대감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2005년 허리케인의 영향이 다소 남아 있는 커피는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EU의 수입 쿼터 종료 및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바나나는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최근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유가로 인해 원유 수출액도 3.6% 증가하였다.

2003년 자유무역지대 및 Maquila(섬유의류 봉제업체) 수출이 통계 작성에 포함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출 품목이 된 의류는 2006년도 중 15억 달러 수출로 전년 대비 2.2% 증가되었다. 임가공 또는 full package 방식으로 생산되는 의류는 對 미 수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2004년 양호한 실적을 보인 이래 최근에는 중국산 대비 경쟁력 약화로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U\$천)

구분	2004	2005	2006
총계	5,036,399	5,380,817	6,025,163
전통수출품목	996,621	1,232,194	1,294,355
- 사탕수수	188,026	236,579	298,558
- 바나나	228,184	236,170	215,625
- 커피	327,846	463,971	463,535
- Cardamom (생강)	73,826	70,361	83,440
- 원유	178,740	225,114	233,198
비전통수출품목	4,039,778	4,148,623	4,730,808
- 의류	1,677,045	1,527,975	1,564,621
- 화학제품	463,284	512,468	536,074
- 식품류	295,809	324,511	394,522
- 과일/가공식품	193,762	246,757	285,840
- 섬유사/직물	117,596	142,941	157,522
- 건축자재	116,634	134,193	153,634
- 플라스틱제품	92,955	111,575	129,018
- 광물	5,210	14,612	125,779
- 천연고무	72,078	81,837	120,968
- 야채/채소	102,305	111,200	114,979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다. 수입 동향

1) 나라별 수입동향

과테말라의 주요 수입대상국에는 미국 및 인근 중미국 외에 한국, 중국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도 對 미 수입은 41억 달러로 총수입의 34.5%를 점하고 있는데, 석유는 거의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DR-CAFTA 역내에서 수입 규모는 11.6억 달러로 2006년도 총수입의 9.7%를 점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서 멕시코 8%, 중국(홍콩 및 대만은 별도) 5%, 한국 4.9%, 엘살바도르 4.6%, 파나마 3.4%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제4위 수입 대상국인 한국에서는 직물 등 섬유류와 자동차 등을 주로 수입하였다.

주요국별 수입동향

(단위: Us\$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총계	9,474.5	10,492.6	11,918.9
미국	3,673.4	3,982.4	4,114.8
멕시코	666.5	794.2	948.2
중국	-	-	595.5
한국	570.7	499.9	580.6
엘살바도르	448.9	503.0	544.7
파나마	427.2	460.8	401.2
브라질	172.7	234.7	392.7
코스타리카	321.0	339.3	372.0
일본	290.1	275.2	317.3
쿠라사오/안틸레스	14.1	96.3	220.0

자료 :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품목별 수입동향

과테말라의 2006년도 총 수입액 119억불 중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은 43억불로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소비재 27%, 자본재 19%, 석유(연료/윤활유) 16%, 건설자재 2%를 각각 점하고 있다.

원자재 및 중간재 수입은 특히 Maquila(섬유봉제) 산업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재 수입은 해외거주 교포의 국내 송금 증대에 따른 각종 전자 제품 수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의 건설 붐에 따른 건설 중장비 및 기자재 수입도 급증하고 있으며 국제 고유가에 따른 석유 수입은 과테말라 무역 적자폭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용도별 수입동향

(단위 : U\$백만, %)

구분	2004		2005		2006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소비재	2,689.9	12.2	2,872.0	6.9	3,171.9	10.3
- 비내구재	1,273.8	8.1	1,444.3	13.4	1,552.3	7.2
- 반내구재	766.8	13.0	790.2	3.3	881.6	11.5
- 내구재	649.3	19.8	637.6	1.6	738.1	15.8
원자재/중간재	3,876.4	18.6	3,960.6	2.2	4,316.7	9.0
- 농업용	229.9	29.9	247.2	7.6	275.1	11.2
- 산업용	3,646.5	17.9	3,713.3	1.8	4,041.7	8.8
연료/운할유	1,088.5	19.8	1,584.0	45.5	1,876.4	18.3
건설기자재	171.0	8.6	218.0	27.4	259.8	19.3
자본재	1,648.0	18.3	1,857.6	12.3	2,293.5	23.5
- 농업용	56,681.4	6.0	48.9	13.8	65.9	34.6
- 제조·통신·건설용	1,218.1	20.9	1,418.5	16.1	1,777.2	25.3
- 운송용	373.2	12.3	390.1	3.9	450.4	15.5
계	9,474.5	16.6	10,492.6	10.7	11,918.9	13.5

자료 : 중앙은행

HS분류에 의하면 기계류 및 전기 전자 제품이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보이고 있다. 동 부문의 2006년도 수입은 20억 달러로 총 수입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석유 및 광산물(19.6억 달러/16.4%), 화학 및 섬유 제품(각 14억 달러/11.8%), 수송 기계류(9.9억 달러/8.3%), 철강/금속제품(8.3억불/7.0%), 플라스틱/고무 제품(8.1억 달러/ 6.8%) 등이 주요 수입 대상 품목이다.

품목별 수입동향 (HS 분류 기준)

(단위: U\$천)

품목명	2004	2005	2006
산 동물/동물성 생산물	167,178	204,225	201,369
식물성 생산품	319,084	340,571	394,339
동식물 유지 및 납	119,163	110,699	118,358
식료품, 음료, 알코올, 담배 등	450,347	510,151	556,313
광물성 생산품	1,158,786	1,670,659	1,958,407
화학 제품	1,127,513	1,287,530	1,405,661
플라스틱/고무제품	619,698	707,962	809,802
가죽/모피제품	33,098	36,326	45,337
목재, 목탄, 코르크 제품	27,498	30,515	38,257
펄프, 종이 제품	438,665	468,024	538,795
섬유류	1,635,427	1,423,366	1,404,433
신발, 모자, 우산, 조제우모 및 造花 제품	70,478	83,683	92,656
석, 석고, 시멘트, 세라믹, 유리 제품	96,473	107,616	127,670
보석/귀금속류/모조 신변장식품	38,056	44,390	47,833
철강/금속 제품	621,637	704,804	829,350
기계류/전기기기	1,395,949	1,607,583	2,018,061
수송기계류	878,790	848,929	994,186
광학기기 등 정밀기기	101,433	118,114	135,250
무기, 탄약류	4,669	5,699	8,360
기타	169,942	181,286	193,921
골동품, 예술품류	586	431	525
총 계	9,474,468	10,492,562	11,918,882

자료: 과테말라 중앙은행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무역 수지

한국-과테말라간 교역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한국의 對 과테말라 수출이 5.5억 달러로 최고조에 달했으며 흑자폭도 4.9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2006년 한국의 수출은 5억4,600만 달러, 수입은 9,600만 달러로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하였다.

한국의 對 과테말라 무역수지

(단위: U\$백만)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501	523	550	499	546
수입	106	66	62	83	96
무역수지	395	457	488	416	450

자료 : KOTIS 통계

나. 품목별 수출현황

한국의 전통적인 對 과테말라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류로 2004년의 경우 총 수출의 70% 를 점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석유류의 수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2007년 2월 현재 약 120개사)들이 한국에서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MFA 협정 종료에 따른 중국 석유 제품의 對 미 시장 진출 급증 및 이에 따른 과테말라산 제품의 경쟁력 저하, 과테말라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근 과테말라의 봉제 분야가 위축됨에 따라 한국의 對 과테말라 석유 수출도 금액 및 비중 면에서 축소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석유류 수출액 2.7억불, 비중은 49%에 불과한 수준이다.

석유류와 달리 기계류 수출은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지의 양호한 시장성가를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도 수출액은 7,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신장하였다. 이외에도 현지의 건설 붐 영향으로 2006 년도 건설중장비 수출은 648만 달러를 기록, 27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단일 품목별로는 직물(2006년도 수출 점유 비중 39%), 경유(14%), 자동차(13%), 합성수지 (6%) 등이 주요 수출 품목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핸드폰은 2004년도 2,200만 달러의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2006년에는 87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 대중적인 저가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한국의 품목별 수출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U\$천)	증감 (%)	금액 (U\$천)	증감 (%)	금액 (U\$천)	증감 (%)
농림수산물	798	73.9	782	-2.1	1,524	95.0
- 면류	466	87.0	386	-17.2	633	64.1
광산물	6,444	-11.7	52,697	717.8	75,602	43.5
- 경유	6,425	-11.9	52,673	719.9	75,565	43.5
화학공업제품	25,524	7.1	46,753	83.2	58,998	26.2
- 합성수지	11,125	-19.1	30,262	172.0	32,251	6.6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18,598	14.8	20,039	7.8	16,715	-
- 타이어	4,730	12.7	8,029	69.7	6,924	-13.8
섬유류	383,718	-1.4	266,910	-30.4	266,345	-0.2
- 섬유원료	1,390	5.1	1,326	-4.6	1,880	41.8
- 섬유사	24,180	14.8	18,219	-24.6	18,587	2.0
- 직물	328,965	-3.7	220,572	-32.9	213,812	-3.1
· 편직물	292,101	0.5	197,484	-32.4	195,443	-1.0
- 섬유제품	29,182	15.3	26,794	-8.2	32,067	19.7
생활용품	5,137	14.5	4,897	-4.7	5,705	16.5
철강금속제품	7,360	11.4	9,143	24.2	12,260	34.1
- 철강판	4,011	107.5	5,052	26.0	9,728	92.6
기계류	71,861	35.0	84,154	17.1	97,336	15.7
- 섬유기계	6,666	-27.3	6,302	-5.5	7,429	17.9
- 재봉기	4,775	-5.6	2,999	-37.2	2,497	-16.7
- 건설중장비	465	-35.4	1,736	273.7	6,477	273.1
- 자동차	50,590	81.7	64,112	26.7	73,683	14.9
- 자동차부품	2,527	-14.1	1,995	-21.1	2,026	1.6
전기전자제품	29,717	44.3	12,202	-58.9	10,154	-16.8
- 무선전화기	22,321	49.4	4,517	-79.8	865	-80.8
- 컴퓨터	306	-50.1	1,315	329.5	1,207	-8.2
- 냉장고	1,340	160.5	995	-25.7	1,620	62.8
- 축전지	2,499	5.6	3,143	25.8	3,100	-1.4
잡제품	908	15.1	1,410	55.3	1,368	-3.0
- 무기류	472	224.0	515	9.2	666	29.3
계	550,065	5.2	498,986	-9.3	546,007	9.4

자료 : KOTIS 통계

다. 품목별 수입현황

한국의 對 과테말라 주요 수입 품목은 원당으로, 총수입의 95% 내외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에 최근 동스크랩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 천연 고무 등도 소량이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품목별 수입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금액 (U\$천)	증감 (%)	금액 (U\$천)	증감 (%)	금액 (U\$천)	증감 (%)
농림수산물	60,633	-6.6	80,022	32.0	92,071	15.1
- 커피	450	96.8	435	-3.4	1,730	297.6
- 원당	59,653	-7.2	79,015	32.5	89,807	13.7
- 천연고무	426	8.7	346	-18.7	381	10.1
광산물	435	3.7	236	-45.8	154	-34.5
화학공업제품	0	-92.2	50	13,632.0	2	-95.9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22	4,809.9	4	-79.5	0	-96.3
섬유류	780	170.2	1,136	45.6	550	-51.6
- 편직물	28	-23.0	154	447.2	163	5.6
- 의류	514	229.0	640	24.6	313	-51.1
생활용품	16	14.2	8	-50.9	57	618.1
철강금속제품	114	30,938.6	1,252	996.1	3,101	147.7
- 동스크랩	114	-	1,163	920.9	2,788	139.7
기계류	84	447.9	569	576.5	141	-75.2
전기전자제품	38	1,453.2	18	-53.5	24	38.8
잡제품	1	-66.0	1	-26.8	2	255.0
계	62,123	-5.4	83,296	34.1	96,102	15.4

자료 : KOTIS 통계

3. 수입규제제도

- 수입 규제 및 금지에 관한 법은 수입 품목마다 모두 다르다.
- 일부 농산품, 산동물,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무기 등 HS CODE 6 단위기준 총 57 개 품목이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수산부의 동물검역 INSPECTION 을 받아야 한다.
-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수산부의 식물검역 INSPECTION 을 받아야 한다.
- 설탕 수입 시는 농수산부의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수산부의 사전 INSPECTION 이 필요하다.
- 의약품 수입 시는 품목성분검사 등 SANITARY INSPECTION 후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이 등록되어야 한다. 과테말라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위생 등록을 통해 상업화 시키기 위해서는 품목당 5 백불이 소요되며 등록 허가에만 4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등록 유효 기한은 5 년이다.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다음은 의약품 통제 및 규정 42-2004 에 관한 필요 서류이다.
- 서류 양식 F-MC-G012 에 따르는 신청원서, 모제약 회사와 자회사의 법적 대표에 대한 약품 판매 양도서, 제품 일반적 이름과 과학적 이름이 있는 품질 형식서, 실험실에서 완성된 지침 사항, 1 차 및 2 차 포장, 위생 증명서의 복사본, 법적 대표의 제품 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내용에 대한 법적 선언, 샘플 제출(1 테이블 60 개, 크림약 4 개, 실업은 4 개, 주입용 10 개) 또한 이외 국제 실험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적 증명이 된 원산지 자유 판매 증명서, 법적 증명이 된 제조업체 품질 증명서, 법적 증명이 된 법적 대표 양도서, 상품 포장 및 제출 요건, 약품 이름, 사용 방법, 주의 사항 기재 (스페인어로), 내용물 분량, 로트 넘버, 위생 등록 번호, 제조자 이름과 제조 장소 표시
-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 중고신발, 의류 등은 수출국 보건당국이 방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소비재 및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이 프가드를 허용, 관세조정 권한(과테말라의 경우 최고 45%)을 갖고 있다. 철강제품일 경우 건설업체나 최종 소비자들은 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혹시 건물의 압사나 붕괴 등을 감안하여 사전 품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세관에서는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 판매 대리점들이 특별히 수입 물품에 대한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축자재의 경우 자재 종류에 따라 틀리며 타일과 같은 경우 원산지 석재가 표시되어야 하며 ASTM 곧 건설 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미주 사회 검사 및 자재의 스펙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사전에 미리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샘플을 통해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경우 이와 같이 수입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원산지 증명서가 첨가되어야 하며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 수입쿼터

과테말라의 수입 쿼터제는 주로 농수산물에만 국한되고 있다.

품목	쿼터양(톤)	관세(%)	쿼터 초과시 관세(5)
사과	7,475	12	25
노란 옥수수	88,000	0	35
기타	30,400	0	23.7
밀	6,690	0	10

자료원: 경제부

5. 관세제도

중미공동관세(SAC)제도 개혁을 통한 시장개방과 관세 인하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93년 4월 이후 평균관세율 20%대에서 10-12%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95년 상반기에 관세제도(SAC)를 개혁하여 관세구조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관세율을 알아보는 방법은 중미 경제 통합 기구인 (Sieca)에 홈페이지를 보면 잘 설명하고 있다.

관세는 대부분 0%에서 20% 사이이며 동물, 식물, 기름, 음료, 광물, 화학물, 고무, 가죽, 나무, 섬유, 신발, 석재, 철, 기계, 전자, 무기 등 대부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품목이 있으며 특히 중미 공동 관세 제도가 있지만 나라별로 틀린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다.

6. 주요인증제도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에 해당하는 인증제도로써 보건부 산하에서 모든 식품과 관련된 수입품들은 식품 위생법 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그외 위험한 화학 재료 같은 수입품은 반드시 위험한 품목 (Dangerous Goods)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 액은 반드시 사전 위험 품목 수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7.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제도개황

과테말라는 지적재산권 국제보호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과테말라에는 약 40년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과테말라 정부는 2000.7월 의회에 산업재산권 보호법안을 상정, 여당(FRG) 주도로 일부 내용을 개정한 채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한 내용으로 밝혀짐에 따라 미국에서 2000.10월 발효된 CBI강화법안(CBTPA) 수혜국에서 제외 및 일반특혜관세(GSP)폐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후 2000.9.1일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불법 위조, 복제 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는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개찰에서 최고 50만개찰까지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 압수 및 체포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테말라 내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보호되며, 특히 중미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 산업소유권 보유협약에 따라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어느 나라에서 등록을 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테말라의 지적 재산권 보호 국제협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GENERAL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RADEMARK & COMMERCIAL PROTECTION (1929.2.20 , WASHINGTON)
- INTER-AMERICAN CONVENTION ON COPYRIGHTS ON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WORKS (1946.6.22 , WASHINGTON)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ND ITS FIRST, SECOND AND THIRD PROTOCOLS (1952.9.6 , GENEVA)
- AGREEMENT ON IMPROTS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BJECTS (1950.11.22 , NEW YORK)
- CONVENTION CREAT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67.7.14 , STOCKHOLM)

나. 저작권

1954년도 제정된 법령 제 1037호는 저작권의 보호 법적 준거가 되며 상법상으로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내에서 등록되면 동등한 보호를 받을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50년 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상표권

1) 개요

과테말라의 상표등록제도는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1968년 6월 1일 코스타리카의 산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협약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고 있지 않고 과테말라 경제부내 산업소유권 등록국(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에서 수행하고 있다.

상표는 산업상표, 상업상표 및 서비스상표로 구분된다. 산업상표(MARCAS INDUSTRIALES)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며, 상업상표(MARCAS DE COMERCIO)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 분배하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서비스상표(MARCAS DE SERVICIOS)란 상기 두 분야 외의 서비스활동을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표에는 기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2) 등록출원 자격요건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 자신이 변호사의 조력하에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 출원할 수 있다.

3) 상표등록 요건

다음의 사항은 상표로 등록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중미국의 국기 및 색깔, 국장, 문장, 기장 및 각 시 및 공공단체의 문장, 휘장, 기장 등
- 해당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의 국기, 국장, 휘장, 문장, 기장
- 국제기구의 기, 문장, 휘장, 기장 등
- 적십자사,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의 이름, 기장, 휘장 등
- 중미국의 화폐도안 및 우표, 인지, 기타 상업서류 및 세무관련 서류도안 등
- 타인이나 종교단체, 국가의 상징, 기타 제 3 국 및 국제기구 등의 상징물을 훼손 하거나 우롱하는 표현, 문구 및 표식
- 공공도덕,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표현, 문구 및 표식
- 특정인의 양해가 없는 성명 또는 싸인, 초상, 가계의 성 등
- 특정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이나 기술적인 명칭
- 특정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지칭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적, 표시 및 용어
- 특정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성분, 품질 또는 물리적 성질 사용목적 등을 묘사하는 모양, 명칭 및 문구
- 특정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효력 및 개발연대 등을 지칭하는 표시나 문구
- 특정제품 및 상품의 사용방법 또는 유통방법

- 특별한 표시나 디자인 특별한 명칭 등의 요소와 병용되지 않은 단순한 색깔의 등록
- 독창성이나 특이성을 띠지 않은 단순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장방법
- 단순한 원산지 또는 출처의 표기
- 타인에 의해 기등록된 종류나 표시
- 기등록된 상표와 유사하거나 유사한 종류로 혼동할 수 있는 그래픽이나 발음, 상징 등의 표시
- 출처, 특성 및 품질 등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는 착오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각국의 지도, 단, 제품이나 상품의 출처나 원산지를 상징하는 상표의 요소로는 사용 가능

4) 상표 심사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경제부 산업소유권 등록국에서 출원신청을 받으면 임시등록 신청접수증을 발급하고 3개월간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기등록 여부, 등록가능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한 후 등록을

수락키로 결정이 나면 관보에 15일에 걸쳐 3회의 광고를 게재하고 타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간 부여하게 된다. 이후 3개월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등록 원부에 등재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 절차상으로는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과테말라 행정부의 행정지연 등으로 최소 1년내지 1년반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5)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국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 혜택을 받도록 등록을 먼저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중미국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상의 등록일시의 우선 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단, 중미국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6) 상표권의 갱신등록

등록된 상표의 1차 보호시한 10년이 경과되어 갱신을 희망할시는 시효만료 1년내 기간에 갱신신청을 해야함. 이 경우 다시 10년간 보호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갱신등록을 희망시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경제부 산업소유권 등록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해당부처 및 기관의 정확한 명기
- 상표소유권자의 성명, 사회적 지위 및 명칭, 국적, 거주지 및 기타 일반적 사항, 법적대리인 또는 피위임인일 경우는 동인의 성명, 직업, 거주지 등을 명기한 서류
- 등록번호, 등록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
- 등록원부의 책, 권 및 장 등의 표기
- 통지가 가능한 등록지 소재 연락처의 우편번호 및 정확한 주소
- 정확한 신청내용 설명

- 신청날자, 장소 및 신청인의 자필 서명 또는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인의 자필 서명위임을 통해 신청시는 이미 피위임인으로 산업소유권 등록국에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처음 신청시 위임을 받은자가 아닐 경우)는 위임장
- 소정의 갱신신청 수수료 납부 증명서

7) 상표권 불사용 취소요건

불사용 취소신청은 법적으로 상표권의 이전신청의 경우가 동일한 절차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경제부 산업소유권 등록국에 출원해야 한다.

- 정확한 관련부처, 기관의 명기
- 신청인의 성명, 사회적 지위, 명칭, 국적 및 거주지 등과 법정대리인 이거나 피위임인인 경우에는 동인의 성명, 직업, 거주지의 명기
- 해당등록 상표의 정확한 지명 및 등록번호 해당등록 원부의 책, 장, 권등의 번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등록지 소재 연락처의 정확한 우편번호 및 주소
- 정확한 신청내용 설명서
- 신청날짜 및 장소, 신청인의 자필서명 및 대리인 또는 위임인의 자필서명

산업소유권 등록국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후 다음 내용을 신청인의 비용으로 단 1회 공시 광고를 게재한다. 단, 법적분규로 인해 법원의 판결로 취소신청을 할 경우는 법원의 등록취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신청인의 성명, 사회적 지위, 명칭, 국적, 거주지
- 등록 취소 대상 상표의 정확한 내용
- 취소 사유 및 해당상표의 모델

8) 상표 출원 및 등록관련 소요비용

상표 출원 및 등록시에는 다음과 같이 소요비용을 경제부 산업소유권 등록국에 납부해야 한다.

- 각 사용 대상 상품 분류 카테고리당 상표 등록시:\$50.00(환율\$1=Q5 로 계산)
- 상호 등록 시: \$50.00
- 광고문안 및 표시등록 시: \$50.00
- 기등록된 상표의 갱신 시: \$50.00
- 상표권의 이전, 사용권 부여, 취소 등록 시: \$10.00
- 상호 및 광고문안의 이전, 사용권부여 취소 시: \$10.00
- 등록확인서의 사본 신청시 매 건당: \$ 5.00

9) 선사용 또는 선등록 주의 여부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5개국은 선등록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0) 상표 출원 및 등록관련 준비서류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정확한 제출대상 부처 및 기관의 명기

- 출원인의 성명, 사회적 지위 및 명칭, 국적, 거주지 및 기타 일반적 사항과 법적 대리인이나 피위임인을 지명했을 경우는 동인의 성명, 직업 및 거주지 등
- 필수적인 상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명료하고 정확한 설명 또는 주요 특징적인 표시 설명, 각 신청서에는 관련상표의 도안 및 모델이 유첨 되어야 함.
- 아래 참고표에 열거된 상품분류 카테고리에 맞춰 등록대상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품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열거
- 상표 원산국의 표기 및 상표의 원산국이 중미국일 경우는 해당국에서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또는 등록 수속중일 경우는 수속중이라는 표기
- 산업상표인지 상업상표인지 서비스상표인지의 등급표기 및 출원인의 중미국중 특정 국내 또는 외국에서 산업업체인지 산업업체인지 아니면 서비스 업체인지의 공식확인 및 동업소 주소의 표기
- 상표 샘플 모델에 나타난 표의 크기, 색깔 또는 색깔의 배합, 디자인 또는 상표의 특징 등의 사양. 이외 동 모델에 나타나지 않는 여타 상표 구성요소에 대한 사양
-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산업소유권 등록국 소재지 시내연락처의 우편번호, 정확한 주소
- 출원내용의 정확한 설명
- 출원 날짜 및 장소, 출원인 또는 법적대리인 및 피위임인의 자필 서명

11) 의장권

선진국 수준의 세부법령을 준비중에 있으며 미국의 압력으로 보다 강화된 법체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특허권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과테말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의 입증서, 신규 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 해야 한다.

특허권 보호기간은 식품, 음료, 의약 및 농화학제품에 대해서는 10년 기타에 대해서는 15년 이다.

8. 통관/운송

가. 통관절차

1) 통관절차 개황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심사 및 물품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는 인스펙션이 강화되는 추세로서 인보이스상 기재되지 않

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많이 초래 될 수 있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Poliza de Importacion) 또는 중미공동수입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시)
- 상업송장(Factura comercial)
- 선적서류(Carta de Porte, Guia Aerea, Conocimiento de Maritimo)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서류 등)

한편, 일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 (Reimportacion)인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 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과테말라 국세청은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화 처리하므로 통관 수속 시간이 훨씬 단축되었으며, 국제 택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3) 물품검사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 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적색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관세 등의 납부

물품검사가 끝나면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0%) 등을 부과한다. 과테말라는 CIF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또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에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등도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또한 2005년 6월부터 국세청은 10만 개짜리 이상의 관세 납부는 서류로 하지 않고 인터넷 बैं킹을 통해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5) 화물의 반출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12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12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운송

현재 과테말라의 수입, 수출 항구 및 공항은 다음과 같다. 태평양으로 들어 오는 아시아 지역 및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뿌에르토 케잘 항구로 들어오며 뿌에르토 케잘 항구에서 과테말라시까지는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미국 동부와 유럽에서 들어오는 수입, 수출품은 대서양의 뿌에르토 바리오스 항구를 통하여 수출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시간은 6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항공물은 대부분 아우로라 인터네셔널 국제 공항에서 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국제 공항은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태평양 항구에서 과테말라 시까지의 운송 비용은 컨테이너 1대당 300불 정도의 운송비가 소요되며 이외 경비비 100불, 통관사 수수료가 200불 정도, 그외 세관 수속비 200불 정도로 세금을 제외한 항구 운송 통관비는 800불 정도 소요된다. 한편 공항에서 운임 비용은 주로 트럭을 통해 운송되며 운송비는 약 100불 정도이다.

다음은 주요 운송회사 리스트와 통관업체 리스트들이다.

1) 통관업체

- SERTOBAR
 - 14av 25-06 Z 5
 - Tel: 2360-4430
 - www.sertobar.com
- ANCARSA
 - 5av 13-48, Z9
 - Tel: 2361-3377
 - email: info@ancarsa.com
- Logistica Aduanal
 - 7av 4-44, Z 9. Centro Comercial Galeria
 - Tel: 2384-9450
 - Fax: 2384-9475
 - www.mega-transport.com
- CORSINA
 - 10a av 12-18 , Z 1
 - Tel: 2253-8321
 - Fax: 2250-0124
 - email: victoriafernandolopez@hotmail.com

2) 운송업체

- Maersk -Sealand
 - 13 calle 3-40, Z 10. Edificio Atantis of 902.
 - Tel: 2379-7270
 - www.maersk-logistics.com
 - email: gmalogmng@maersk-logistics.com
- Transporte Medina
 - 12calle 27-80 z 4 de Mixco, colonia villas de pontevedra

- Tel;2421-9595
- Fax;2421-9596
- www.transmedina.net
- Transporte LA CEIBA
 - Km 20 carretera al Pacifico
 - Tel; 6620-9500
 - Fax; 6620-9501
 - www.transportelaceiba.com
- Caniz
 - Av Hincapie 5-13, Zona 13
 - Tel: 2420-8080
 - Fax:2334-8511
 - www.Caniz.com
 - email: caniz@caniz.com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현황

과테말라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자도입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회간접 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외국인 기술자의 취업제한 등 제도 법령상의 미비점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정학적 유리한 여건에 비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지 투자는 TSUSA 806 또는 TSUSA 807 베이스에 의한 진출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테말라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는 대부분 미국계, 스페인계, 독일계 등의 회사들이며, 특히 과테말라의 봉제업체수는 약 320개사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업체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여 전체업체수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94년 NAFTA 발효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카리브국들은 미국에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 '2000년 5월 중미, 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2000년 10월부터 발효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 1) 미국산 원사와 원단으로 현지 재단 및 봉제된 의류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를 부여하며 관련 마무리공정(세탁, 염색, 자수, 퍼머넌트프레싱 등)에 대해서도 면세가 되며
- 2) 미국산 원사와 원단으로 현지 봉제된 의류에 대해서도 무관세 무쿼터가 적용된다. (이 경우 마무리과정 면세 혜택 없음)

3) 미국산 원사로 현지 편직된 원단으로 현지 재단, 봉제된 니트의류는 중미카리브지역 전체에 걸쳐 연간 2억5천만 평방미터 범위내에서, 티셔츠의 경우 420만더즌의 쿼터량 범위내에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산 원사와 원단으로 현지재단 봉제(807베이스)된 의류에 대한 오더 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종제산업 진출전망은 밝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의류소비 감소와 수출단가하락, 근로자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지 의류봉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6년 2월부터 중미-미국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원산지 증명- 야안 포워드(Yarn Forward)적용되며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협정 당국들은 상호 무관세 혜택제도를 만들었으며 CAFTA 관세 비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소급 무관세 혜택제로 지금까지 중미 지역에 무역을 진행해온 미국 원사 방직회사와 원단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소급 무관세 혜택 제도로 미국과 중미 국가 섬유, 봉제 업체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2005년 쿼터제 폐지 이후 소매업자 물품 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축적 시스템으로 우븐 의류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축적 시스템에 동의하였다. 이 시스템은 멕시코와 캐나다로 하여금 입력 제한량을 허용하여 중미와 도미니카 의류 산업에 사용되도록 하여 무관세 혜택을 입도록 하는 제도이다.

축적(Cumulation)량은 연간 1억 제곱 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량이 늘어날 경우 2억 제곱 미터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백만 제곱 미터는 모직이며 2천만 제곱 미터는 청 대님, 4천5백만 제곱 미터는 면과 인조 바통 웨이트이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중미에 상호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세관 검사 강화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중미 국가들 에게는 제 3자 물류 공급자 혜택이 없다: CAFTA의 제 3자 물류 공급자 혜택은 단 예외로 니카라과는 1억 평방 미터의 제 3 세계 물류 공급이 허락 되었으며 무역량의 4%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또한 향후 10년후면 효력을 잃게 된다.

나. 투자 장려 분야

과테말라는 북미시장과의 인접성으로 신속한 딜리버리가 가능하고 육류, 설탕 및 봉제 의류 등 6개 카테고리를 제외하고는 대미 쿼타 규제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으며, 노동임금이 저렴(최저임금 월 US\$148수준, 평균임금 월 US\$300 수준)하여 임가공 우회 수출기지로 활용이 가능한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이 미비(특히 통신시설)하고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60% 수준으로 저조하며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이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 정치적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시장 또는 인근 중미시장을 대상으로 상기 투자 메리트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봉제업, 봉제원부자재 생산업과 함께 현지 생산기술이 취약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자 제품조립업, 자동차부품류 생산업, 농.원예작물생산업, 및 기타 단순조립업 분야 등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과테말라의 신정부들어 근로자 임금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진출 기업에 대한 노동부, 국세청 등의 INSPECTION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진출기업(직접투자 및 현지자생 포함)수가 약 230개 중 봉제업체는 180개에 달하고 있어 과당 경쟁의 소지도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공장이 진출할 경우 노동력조달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임금인상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치안이 계속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진출업체들이 컨테이너를 분실하거나 현금 도난, 공장 주요시설 절도 등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다. 투자 제한 분야

그러나 최근 들어 봉제 공장의 경우는 중국의 쿼터제 해제와 2006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10% 인상함에 따라 오더의 경쟁력과 세계화 섬유 산업에 준비된 업체들의 진출은 가능 하나 제대로 된 시장 조사 없이 봉제 산업 투자하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투자 금지 분야

중미-미국과의 자유 무역 협정체결로 인해 과테말라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명성과 법적 보장을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특별히 금지된 분야는 없으나 봉제이외에 과테말라에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 상대 현지 기업들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 농수산업, 식품 가공업은 중미 국민들의 입맛등과 고려해 볼 때 한국과는 많이 틀리므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또한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현재 과테말라의 약점 중에 하나인 외국인 직접 투자 분야이다. 국가 경쟁력 프로그램에서 회사 설립 절차 및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자본을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하였다. 2004외국인 투자 유치는 1억 5 만불, 2005년은 1억 9천만불을 기록하였다.

2005년에 외국인 투자 성과라고 한다면 월마트의 과테말라 진출, 페루 콜라 기업의 과테말라 진출, 온두라스 의류 업체 진출, 미국의 일부 외식업 업체 진출 등으로 약 1억 9천만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코스타리카, 엘살바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얇은 투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두 나라들은 각각 5억불, 4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치안과 정의에 예산의 17%만 투자되는 행정력에 문제를 삼고 강력한 정부의 행정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은 조세, 세금 문제에 관하여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분명하고 투명한 정부의 투자 진흥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과테말라의 지난해 경제 자유 지수는 3.02%를 기록하여 무역 진흥, 세금제도, 정부 기관 시스템, 통화 상태, 은행제도, 물가 수지 등에서 0.17% 진전이 있었으나 세계 은행에

의하면 아직도 사업하기에 좋은 나라 순위 160개국 중에 109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영국의 통조림 제조 회사의 6천만불, 미국의 Corn Mill 회사의 투자자들도 관망 상태에 있다. 걸치레 형식이 아닌 알뜰 해외 자본 유치 정책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 20일 월마트는 중미 소매 지주 회사(CARHCO)의 지분을 30% 구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미 유통 시장 진출을 선언하였다. 사실 세계 최대의 미국 유통회사인 월마트가 중미와 과테말라와 중미 최대 유통업체의 지분 30%를 인수한 것은 전세계적인 월마트 매출, 2004년 3천억 달러와 CARHCO회사 연간 매출 20억불을 비교해 볼 때 크지 않은 것 같은 중미지역에서는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월마트 관계자에 따르면 과테말라와 중미 내에서 월마트는 월마트의 상표를 내걸 의향은 없으나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였다. 2005년 들어 중미 소매 지주 회사에 대한 투자는 중미 투자 가운데 4번째 투자이다.

2005년 11월 3일 현재 용자 및 민간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4억 4천 6백만불로 외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의 외화 수입 지출은 3억 4천 7백만불 적자였다. 지난 11월 3일까지 외화수입은 80억 6천 7백만불, 외화 지출은 85억 1천 3백만불이었다. 과테말라는 현재 건설과 제조 생산업체들 중심으로 외화 유치를 나서고 있다. 현재 중미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1위는 코스타리카, 2위는 도미니카, 3위 코스타리카, 4위 과테말라 그 다음으로 니카라과, 온두라스이다. 국정 기획실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항은 고급 인력 부족, 교육 수준 저하, 위생 시설 서비스 저하 등이라고 언급하였다.

연도별 국내외 투자 현황

(단위 :미화 천 달러)

투자/연도	2003	2004	2005
외국인투자	131,007.3	154,717.0	n/a
은행	285,427.5	249,302.1	n/a
기타(국내기업투자)	567,791.5	675,521.1	n/a
합계	984,226.3	1,079,540.2	n/a

자료원: 과테말라 중앙은행

주)2005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음. 미국, 스페인 그리고 멕시코 기업의 투자가 많음, 투자 별로는 통신, 전기 그리고 섬유임

그 외 업체별 투자액

(단위: 미화 천 달러)

업체명	국가	분야	투자액
ENDESA	스페인	정보 통신	320
DUKE Eergy	미국	에너지	150
COMCEL	룩셈부르크	정보 통신	5.3
TELEFONICA	스페인	정보 통신	400
DIGICEI	미국/엘살바도르	정보 통신	30

자료원: 일간지 eiu

주: 현재까지의 투자액이며, TELEFONICA의 경우 미국 bellsouth. 중남미 지분을 샀으며, 54억 달러 투자 계획.

2006년도 외국인 투자 현황

분야	국가	업체명	투자액
경공업	멕시코	ENVASES UNIVERSALES	US\$42,000,000.00
경공업	영국-멕시코	EMPRESA DE LATAS DE ALUMINIO	US\$45,000,000.00
경공업	과테말라-캐나다	EMPAQUES Y COSTALES	US\$750,000.00
경공업	캐나다	PROCESAMIENTO DE GINSENG	300,000.00
경공업	대만	EMPRESA LATINAS	1,500,000.00
경공업	과테말라-대만	B-MART/OMRGA TECH	4,000,000.00
경공업	대만	GRUPO INDUSTRIAL DE EMPAQUE S.A	5,000,000.00
경공업	대만	OVERSEAS ENGINEERING CONSTRUCTION	8,000,000.00
경공업	대만	Ta china dairy guatemala corp	200,000.00
섬유	한국	P&K dye house	10,000,000.00
섬유	중국	sml	6,000,000.00
섬유		TEXTILERA	35,000,000.00
경공업		과테말라 섬유 협회	50,000,000.00
콜센터	스페인	Digitex	4,200,000.00
콜센터	콜롬비아	Target one contact center	480,000.00
콜센터	인도	24/7	3,000,000.00
콜센터	인도-미국	Call universal	150,000.00
농업	과테말라-미국	Fresh harvest/planesa	4,000,000.00
BPO	미국	Empresa de back office	9,500,000.00
농업	대만	San isabel corp	5,000,000.00
농업	코스타리카	Florida ice & farm	86,000,000.00
농업	미국	Coosemans	6,000,000.00
농업	멕시코	Bimbo	18,000,000.00
관광	영국/멕시코	Hotel crown plaza	4,500,000.00
관광	프랑스	Hotel mercure	14,000,000.00
관광	미국	Carnival corporation	40,000,000.00
관광	중미-미국-스페인	CFB corporation	40,000,000.00
기타(서비스)	멕시코	Banco azteca	15,000,000.00
기타(서비스)	미국	DHL	330,000.00
기타(서비스)	과테말라-온두라스	Carrion	6,000,000.00
TOTAL			US\$474,910,000.00

2006년 동안 신규 고용 수 14,700명

자료원: INVEST GUATEMALA

3. 우리기업 투자동향

우리나라 기업의 과테말라 투자진출은 한국은행 투자승인 기준으로 2005년 말 현재 68건으로 그 외 비공식 투자 및 현지 교포투자 기업을 포함한 한국계 기업은 약 180여개 사로 추산된다.

현지의 한국계 투자기업들의 약 95%가 의류 봉제 생산업종으로서 대미 의류봉제 보세 수출기업 (마킬라도라)이며 약 72% 정도는 미국의 807A 프로그램상으로 미국 원산지 원단 및 부자재를 공급받아 현지에서 임가공하여 완제의류를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이다. 나머지 28%는 한국이나 제 3국으로부터 원단 및 부자재를 수입하여 현지에서 봉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806베이스).

한국은행 투자승인을 받은 58건의 투자 진출을 기준으로 한 과테말라 투자총액은 70 백 만 불 규모이며, 한국계 자생기업 포함 현지인 총 고용은 60,000명 수준이다.

연도별 업종별 투자현황

(단위: 천미불, 건)

업종/연도	2004	2005	2006	누계
제조업	4,671. (1건)	12,892. (2건)	113(2건)	86,569. (69건)
기타	0	0	0	51. (1건)
합계	4,671. (1건)	12,892. (2건)	113(2건)	86,608 (70건)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4. 주요 투자법 내용

보통 과테말라의 외국인 기업들은 대부분 단독 투자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합작 투자의 경우도 있다. 합작 투자의 경우는 주로 지분만을 포함하고 경영권은 대부분 과테말라 국내 기존의 회사가 맡기도 한다. 또한 합작 투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 원자재 구입은 외국인 회사에서 주로 맡고 있으며 국내 기업은 영업과 생산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많이 구사하기도 한다.

단독 투자의 경우, 다국적 기업과 한국의 봉제, 섬유 기업들은 현지 법인 설립을 하여 현지 기업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현지 사무소 운영 형식을 쓰기도 한다.

다음은 법인 회사의 설립 절차이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 설립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나 진출 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 등기소 등록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필요서류의 준비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필해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 만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 불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무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나. 상업등기소 등록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 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 만불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한편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액이 최소 5,000 께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납세자번호의 취득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라. 외환취급을 위한 수출입허가 취득

수출입업무 과정의 외환 취급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중앙은행(Banco de Guatemala)에 수출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중앙은행의 신청서 양식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상업등기소 등록증명서
- 현지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지사개설 가이드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지사설립을 위한 법인 등기 및 등록과정은 투자진출절차 항목과 같다. 따라서 사전 출국전에 본국에서 준비 해야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지도착후에는 개설요원의 현지체류에 따른 비자취득, 사무실 확보, 주거 확보, 종업원 채용 등이 법인등록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체류비자의 취득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는 여행객에 대해 15일 또는 30일 비자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비자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과테말라 이민청(Dirreccion General de Inmigracion) 의 외국인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서 비자를 연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연장시에는 90일짜리를 내어주며 그후 다시 2년짜리의 임시 체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90일 비자는 발급시까지 약 1개월, 2년 임시체류 허가는 5개월 가량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비자체류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과테말라의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을 신청하려면 과테말라내에 5년이상 거주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처음은 단기비자 연장으로 체류할 수 밖에는 없다. (세부내용은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다. 사무실 확보

현지 도착후 먼저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설립등기나 비자연장, 비품구입, 종업원 채용 등 설립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 사무실의 경우는 대체로 과테말라 시내의 신도심지역인 ZONA 8, 9, 10 등이 무난하며, 영업의 성격상 공장이나 공단이 인접한 지역이 필요한 경우는 관련 산업시설이 소재한 곳으로 물색한다.

과테말라 시내에서는 아무리 멀어도 약 20-30분내에 도심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주거지와 의 거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다만 구도심 지역의 경우 치안이 불안하여 사고가 빈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라. 주거 확보

현지 지사의 대표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주거지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무실 물색과 병행하여 추진하거나 우선적으로 이를 추진한다. (세부내용은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마. 은행구좌 개설

법인 은행구좌는 상업등기소 설립등기가 완료된 후에 개설이 가능하므로 일단 법적 등록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설시 구비서류로는 회사정관, 법인등록증, 설립법인 대표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등이다.

바. 비품구입, 전화가설

사무실이 정해지면 필연적으로 입주시기를 대비하여 사무용가구를 알아보고 전화 가설 신청도 해야 한다. 가구는 주문을 하면 2-3일내로 배달해 주므로 문제가 없으나 전화의 경우에는 1달 이상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신청한다. 인터넷은 COMTECH, CYBERNET 등과 같은 IP업체에 의뢰하는데 설치에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해 놓도록 한다.

가구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이나 배치, 근무자수 등에 맞게 골라야 하므로 사무실이 정해진 후에 구매해야 함은 당연하다. 가구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구입할 수도 있으나 인테리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일괄 조달할 수도 있다. (세부내용은 이주, 정착가이드 참조)

사. 종업원 확보

사무실과 비품, 전화가설 등이 완료되면 종업원 채용에 들어간다. 주요 일간지 광고에 구인광고를 내고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사전 인터뷰를 거쳐 선발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변의 지인이나 업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출 초기에는 현지실정에 밝은 사무직 직원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경험 많은 현지인으로 채용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채용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개설 준비단계에서는 현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지정 개설시까지의 일단 임시 채용한 후 지정 개설이 완료된 후 근무태도나 업적 등을 검토하여 정식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정개설이 완료되면 현지 노동관계법도 꼼꼼히 공부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조건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 마무리 단계

법인 설립등기, 납세자번호 취득, 수출입업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업무가 개시되나 시간을 두고 준비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6. 투자입지여건

가. 주요 지역별 입지 조건

과테말라의 투자 지역은 대부분 과테말라 시에 몰려 있으며 과테말라시에서 주로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은 믹스코 지역, 비야 누에바 지역으로 인력 자원이 풍부하며 교통과 전기 조건이 좋다. 이외에도 자유 무역 지대도 좋은 사업 투자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

나. 산업 단지 및 자유 무역 지대 리스트

□ 지대명: ZOLIC(ZONA LIBRE DE INDUSTRIA Y COMERCIO SANTO TOMAS DE CASTILLA)

- 주 소 : 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 Isabal, Guatemala, C.A.
- 전 화 : (502)2360-1971/81
- 팩 스 : (502)2335-3009
- 설치시기: 1973 년도
- 소 유 주: 과테말라 정부
- 위 치: 수도 과테말라에서 대서양방향 300 KM, PURTO BARRIOS 항구에서 7K, SANTO TOMAS DE CASTILLA 항구 인근
- 기 후: 아열대성 기후, 연중 고온 다습
- 입주업체수: 40 여개
- 아국업체 입주수: 없음
- 전체 면적: 102,154 M2
- 임대료(전력, 수도, 전화 등은 별도) : U\$11.74-14.68/m2 수준
- 지 대 명: ZONAS FRANCAS ACTUALES, S.A
- 주 소: 7a Avenida 14-44, Zona 9, Guatemala (Headquarters)
33 Calle 27-01, Zona 12, Guatemala (Ind.Park #1)
Final Calzada Aguilar Batres Zona11, Guatemala (Ind.Park #2)
- 전 화: (502)2331-6102
- 팩 스: (502)2332-4011
- 설치시기: 2000.3 월 운영개시
- 소 유 주: ZOFRACSA
- 위 치: 과테말라시티 공장지대에 위치
- 기 후: 연중 상춘의 기후(평균 20-25 도)를 나타냄
- 입주업체수: 3 월 운영개시 예정으로 현재 모집중
- 전체면적: 미정
- 참고 임대료: 월 U\$4.5/M2(전력, 수도, 전화설치, 세관서비스 등 포함)

□ 지 대 명: PARQUE INDUSTRIAL ZETA LA UNION S.A

- 주 소: Carretera al Pacifico Km 30.5, Amatitlan, Guatemala, C.A.
- 전 화: (502)2633-1609/12/01
- 팩 스: (502)2633-1631

- 설치시기: 1990 년
- 소 유 주: ZETA 그룹
- 위 치: 수도 과테말라에서 태평양 방향 14KM, 태평양측 항구에서 100KM, 대서양측 항구에서 340KM
- 기 후: 1100M 지대로 기후조건 양호하나 분지형 지대로 수도보다 고온 다습
- 입주 업체수: 20 개 업체
- 한국 업체: 4 개사
 - CALIMERO, S.A.(봉제)
 - TRES B, S.A.(박스포장)
 - UNIPLASTIC, S.A.(폴리백)
 - CAMBRIDGE (박스공장)
- 전체 면적: 133,000 M2 (80,000M2 완공)
- 참고 임대료: 월 U\$4/M2(전력, 수도, 전화설치, 세관서비스 등 포함)

7. 노무관리

가. 인력

과테말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33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높아 유희노동력은 풍부한 편이다. 86년 50.6%에 달했던 실업률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 2002년에 약 48%를 기록하였음

2006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를 산업분야별로 나누어 볼 때, 농업분야에서 39.8%, 교육 2.9%, 상업 19.7%, 운송 2.5%, 건설 5.3%, 서비스 8.1%, 은행금융 2.2%, 제조업 16.7% 공공 2.5% 등을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숙련 노동인력은 드문 편이나 대미 수출우회기지로 발달한 섬유 봉제업의 경우 숙련 노동력이 많은 편이다.

나. 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공장 설립 당시에는 사규 1부와 각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회보장기구(IGSS)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분 투자업체에서는 관련업무를 현지인 노무관리사에게 일임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채용 후에는 매년 별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기구(IGSS)에는 매달 인원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다.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단, 동 허가도 법적으로는 과테말라내에 상응하는 기술인력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서는 동일한 수의 과테말라인 기술자를 고용, 훈련 시켜 양성해야 하며 과테말라 기술자가 외국인을 대체할 정도로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는 외국인 기술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 외국인의 고용은 해당 업체의 총 고용인원의 10%,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외국인의 노동허가 신청서류는 1) 여권사본, 2) 업주의 재정보증서, 3) 해당 기술증명서(과테말라 노동부 지정 검정기관 발행), 4) 최종 거주 국의 무 범죄 증명서(신원 증명서), 5) 스페인 어 어학 능력 증명서, 6) 내국인 근로자 훈련계획서 등이며 이외 행정상 red-tape의 하나로 1년이 상 장기체류 비자 취득 여부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스페인계가 아닌 한 노동허가 받기가 불가능한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테말라에 투자진출하고 있는 아국업체 중 단 하나도 노동허가를 발급 받은 업체가 없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불법인줄 알면서도 아국근로자를 현지인 기술 지도자 내방하고 있고 현지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트레이너라고 하면서 노동부에서 조사 나오면 그때 그 때 임기응변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이를 이유로 법적으로 추방 등 해당 조치를 받은 바는 없다.

라. 급여

1) 임금

과테말라는 전 산업부문에 걸쳐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2000년 들어 급속한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월 1일에는 5% 상승 하였다.

2006년 기준 산업부문별 월평균 명목 임금 액은 아래와 같다.

산업부문	월임금액(깨찰)	산업부문	월임금 액(깨찰)
농업	1,158	광업	3,044.0
전기가스물	2,729	제조업	1,826
건설업	1,848	상업	2,221
교통통신업	2,401	개인서비스	1,983

자료원: 노동부

한편, 직종/학력별 급여(초임) 수준은 다음과 같다.

- 대졸 사무직 남자: 월 US\$ 800-1,500
- 고졸 사무직 남자: 월 US\$ 400-500
- 대졸 비서직 여자: 월 US\$ 500-600
- 고졸 비서직 여자: 월 US\$ 300-400
- 생산라인 반장급: 월 US\$ 400-500
- 생산라인 고참급: 월 US\$ 300-400
- 생산라인 평균: 월 US\$ 200-250

2005년 6월 현재 과테말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농업부문 종사자가 1일 Q38.6 (월 Q1158), 비농업부문 종사자가 1일 Q39.67(월 Q1190.10)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시권에서 동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규모가 갖추어진 생산공장의 경우 생산라인 투입 미숙련공에 대해 평균적으로 실제 지불하고 있는 임금은 US\$ 250-300정도(연 2회의 100% 법정상여금 포함)이며 잔업수당(일일 1시간 기준)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하면 1인의 미숙련공에 대해 약 US\$300-350의 인건비가 투입된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 인상되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비농업분야 종사자들은 종전의 일일 Q39.67에서 Q43.64를 받게 되고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Q38.60에서 Q42.46을 받게 된다. 이는 곧 1인당 월간 Q120(U\$15.78)을 더 받게 된다.

2) 초과근무수당

초과 근무수당은 4시간까지는 기본급여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1일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3) 보너스

노동법에 따르면 1년에 2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여금은 매년 7월에 지급하는 BONO14와 12월에 지급하는 AGUINALDO로 구성된다.

BONO14는 매년 1.1 - 12.31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까지 지급한다. 근무 일수가 1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AGUINALDO는 전년 12.1 - 당년 11.30 기준으로 월 급여의 10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근무일수가 1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마. 사회보장보험료

5인 이상 작업장의 사용자는 과테말라 사회보장기구(IGSS)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동 보험의 사용자부담은 각 노동자의 월 급여의 10.67%를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는 월 급여의 4.83%를 부담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외 근로자 휴양시설 관리비(IRTRA)와 근로자 기술훈련비(INTECAP)로 각 월급여의 1%씩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용자의 총 부담금은 각 노동자의 월 기본급여 중 약 13%가 된다.

바. 기타 FRINGE BENEFIT

기타 급여성 경비로는 1) 퇴직금 (정상적 퇴직시): 1년당 1개월, 2) 기술훈련기금 (INTECAP): 1%, 3) 근로자 휴양시설관리비(IRTRA): 1%, 4) 유급휴가비: WORKING DAY 기준 15일분 등이 있다. 단, 유급휴가비는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나 대부분 업체가 실시하기가 어려워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 휴가제도

동일한 사용자 밑에서 계속 일을 해왔으면 1년 마다 WORKING DAY 기준으로 연간 15일의 유급휴가(연가: Annal Vacations)를 부여해야 하며 실시치 않았을 경우는 금액으로 환산 지급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54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 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출산 5주전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 근로자중 미성년자를 양자 또는 양녀로 입적하였을 경우에도 54일간의 출산 후 휴가권을 가진다

이외에도 배우자, 부모, 형제의 사망 시는 3일간의 유급휴가(기복휴가), 본인의 결혼 시 5일간 유급휴가(결혼휴가), 자녀 출생 시 2일간 유급휴가(출산휴가)를 준다.

사. 보험제도

일반 현지근로자들 대상으로는 대부분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는 수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지에도 단체 종합보험(COLLECTIVE SECURITY)제도가 있으나 비용부담은 큰 반면 실효는 적어 사용치 않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는 해당 근로자 가족과의 협상으로 처리를 하는게 관행화되어 있다.

시설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보험가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유사사건의 빈발로 인해 현재는 현지 또는 미국이나 본국소재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에 부담하는 업체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 해고

노동법에 의해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 해고수당을 지급하면서 노.사간 서명하는 고용계약해지서(FINIQUITO)로 대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이다.

자. 노조

1) 노조결성요건

근로자 20명 이상이 서명하고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관 및 내규사본 1부를 갖춰 노동부 및 산하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결성이 되며 과거와 같이 노동부가 해당 작업장 사용자에게 동 신청서 접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되어 노조 구성은 사용자가 사전에 전혀 고지 받지 못 한채 구성이 가능토록 법제화되어 있다.

2) 노조활동보장

노조집행부 전원은 매달 6일 이내의 노조활동을 위한 유급 휴무기간 보장받으며, 모든 노동자들은 노조가입을 이유로 해고 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되어 있다.

노조집행부는 노조설립사실의 대노동부 총감독관실 통보시점부터 사용자에게 대한 해고 불능권 혜택을 받게 되며 동 권리는 집행부에서 직무수행이 끝난 후에도 12개월간 보장된다.

3) 노조활동실태

멕시코의 NAFTA 가입 직후인 1994-95년 기간 중 노동자 파업, 노조활동이 강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미국 및 캐나다 노동단체의 중미지역에 대한 인권문제, 노동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개입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95.5월 미 노총은 과테말라 노총 간부를 초청, 미의회 청문회에 과테말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증인으로 세운 바 있다. 미 노총의 논리는 기본적 노동권이 보장 되지 못하는 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반사적으로 발생할 미국 내 실업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이며 중미지역에서의 기본적 노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 1) 미성년자의 고용
- 2) 노조결성의 방해 및 탄압
- 3) 기본적 노동환경의 미비,
- 4) 임금의 체불
- 5) 해당국 정부의 노동감독 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발생한 바나나농장 노조간부 협박, 납치 및 900명 종업원 해고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에서는 사태해결과 관련자 처벌 등의 노력을 미국 CBI강화법안 수혜국 포함여부와 연계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정부에서는 2001년 4월까지 과테말라의 국제수준의 근로자 권익보호, 반노조폭력 근절, 국제수준의 노동규범의 제정 노력 등을 지켜본 후 CBI강화법안의 수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8. 조세제도

가. 조세제도 개황

과테말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이자소득세, 사회보장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Arbitrio Municipal(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 이 있다.

나. 소득세

연 36,000 께찰 이하의 수입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이를 넘을 경우 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60,000 께찰인 경우는 기본수입인 36,000께찰을 초과하는 24,000께찰에 대하여 15%의 세율을 적용한 3,600께찰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수증(FAC- TURA)에 의한 소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일년 동안 36,000께찰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증빙인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물품 구입시 기 납부한 부가 가치세 3,600께찰로 소득세 납부 분을 대신할 수 있다. 2000년에 개정된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2000년 이후 증가 하지 않음)

연간소득액(께찰)	세율적용액
36,000 이하	면제
36,000 초과 - 65,000 이하	15% x 36,000 초과분
65,000 초과 - 180,000 이하	20% X 65,000 초과분
180,000 초과 - 295,000 이하	25% X 180,000 초과분
295,000 초과	31% x 295,000 초과분

이와 함께 소득에 대한 법정 원천 징수율은 아래와 같다. 외국으로 상기 소득분을 지불할 시 지불자는 하기 징수율에 따라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소득구분	원천 징수율
배당금, 순이익	12.5%
수입이자, 수수료, 커미션, 보너스, 급여	20%
로열티, 상표 및 특허사용료, 기술 자문료	30%

법인소득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의 25%로서, 재투자분은 소득액 20% 한도로 세액 감면된다. 법인소득세 과세대상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Gross Revenue	Q xxxxxx
(-) Costs and Expenses	Q xxxxxx
-----	-----
Net Income	Q xxxxxx
(-) Exempt Revenue	Q xxxxxx
(+) Non-deductible Expenses	Q xxxxxx
-----	-----
= Taxable Income	Q xxxxxxxx

개인 또는 법인은 매분기 별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과세소득 산출방법은 하기 중 1가지를 택일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1) 분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산출
- 2) 분기별 총 수익(소득세 납부액은 제외)의 5%의 30%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추정
- 3) 전년도 소득세 납부액의 25%를 기준으로 납부
- 4) 분기별 총 수익의 1%를 소득세로 납부
- 5) 수출자의 경우 분기 수출액(FOB기준)의 1.5%를 소득세로 납부
- 6) 연간 총 수익이 1백만 켈찰(U\$166,667) 이하인 기업체인 경우 총 수익의 8%를 소득액으로 산출

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수입, 리스 등의 거래가격에 과세되며 세율은 12%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업송장 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

라. 인지세

민간 또는 상업계약, 공증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나 행위를 포함한 서류에 부과되며 세율은 3%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는 서류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마. 이자소득세

금융이자 소득은 2000년도에 인상되었는데 세율은 20%이다. 단, 금융기관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소득은 면세 처리 된다. 즉 일반 시중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로 인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면세가 된다.

바. 재산세

재산가액에 따라 차별 과세되며 세율은 0.2%에서 최고 0.9%까지 이다.

재산가액	세율
Q 2,000이하	면제
Q 2,000초과 - Q20,000이하	0.2%
Q 20,000초과 - Q 70,000 이하	0.6%
Q 70,000초과	0.9%

사. 지방세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Arbitrio Municipal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인의 소득액에 따라 연간 최저 15 개찰에서 최고 100개찰까지 과세한다.

아. 투자 시 세제면제

수출산업촉진법에 의해 수출산업 투자 시는 회사 또는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기자재 반입시 관세를 면제하며 설립 후 10년간 내국세를 면제한다. 수출용 완제품에 소요자재의 국내 구입시 부가가치세의 면제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문화되어 현실적으로 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과테말라는 '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간 거래, 세금, 관세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는 없으며, 칠레와 같은 Encaje(외화자금 유입 시 일정비율 강제예치) 제도도 없다. 다만 외환관리법(Decreto 22-86)으로 수출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역거래를 통해 수수한 외화는 90일 내에 국내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엘살바도르가 달러화를 공용화폐로 채택하고 고정환율제를 실시함에 따라 과테말라 내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달러화 자유유통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로서 주요내용은 노동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급료, 수수료, 커미션 등을 달러화로 계약하거나 지불토록 함과 동시에 금(GOLD)의 수입, 수출, 보유, 매매를 자유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과테말라는 중미 5개국 중 최대시장으로 '95년을 기점으로 연간 30억불대 수입시장으로 성장, 2001년 50억불대, 2002년에는 56억불대로 커지고 2003년 81억, 2004년95억불, 2007년은 150억불 수입을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조산업의 취약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전체수입시장의 약 50%를 점유하고 있어 미국제품의 대체상품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시장진출 잠재력이 크다. (건설장비, 통신기기, 발전설비, 인쇄기계, 포장기계 등)

가. 시장특성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대외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꾸준히 원자재 수입과 경공업 중심으로 자본재 상품 곧 기계류들을 구입하여 제조업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정학적, 경제구조적으로 미국 경제권하의 지역으로 대미 수출입 의존도가 높다. 인접 마이아미 시장의 수요 및 기호 변화에 민감한 시장특성을 보이며, 특히 마이아미 대상의 소량, 다품종 오더의 신속한 중계 공급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 NAFTA경제권에 흡수되어 노동집약적 생산거점 및 소비시장 지역으로 역할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산층 형성이 미약한 상, 하층의 2단계 소득분포 구조로 자국산의 입지조건이 까다로우며, 수도권 및 극히 제한된 도시권에 유효 구매수요가 밀집되어 있는 등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국상품 진출이 용이치 않은 시장이다. 한편 중미경제통합과 NAFTA 참여를 대비하여 역내 산업구조 조정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중소형 플랜트 등 시설재 및 공업용 원부자재 수출이 계속 유망 시 되고 있으며, 중미공동관세(SAC)제도 개혁을 통한 시장개방과 관세 인하 정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93년 4월 이후 평균관세율 20%대에서 10-12%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95년 상반기에 관세제도(SAC)를 개혁하여 관세구조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현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행되어 수입품간의 경쟁이 치열한 편이며, 특히 인근의 멕시코, 파나마 등지로부터 저가품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으나 꾸준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기반으로 시장 접근을 시도한다면 아직도 중미시장의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함께 중미공동시장(CACM)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자유무역주의를 채택, 인근 멕시코와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캐나다, 파나마, 칠레, 도미니카 등과도 이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 유통구조 개황

과테말라는 생산자(또는 수입상)-도매상-소매상의 유통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나 대체로 유통마진이 높은 편으로 최근에는 중간 유통과정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는 생산자(또는 수입자)로부터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대형 슈퍼마켓의 발달로 도, 소매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계류, 부품 등 자본재의 경우는 수입상이 중간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테말라의 상권은 유태계, 아랍계, 독일계와 스페인계가 대략 삼분하고 있는데, 특히 유태계는 금융권, 아랍계는 의류 등 일반 소비재, 스페인계는 식음료계를 움직이고 있으며 독일계 및 일부 스페인계 등은 산업계와 커피경작 등 농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테말라의 유통업계는 소량 다품종이 일반화된 관행이고 또 이는 소득계층이 상류와 빈곤층으로 대별되고 중산층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아국산 일상용품처럼 브랜드 성가정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중급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입지가 어려운 시장이다.

다. 도소매상 간의 유통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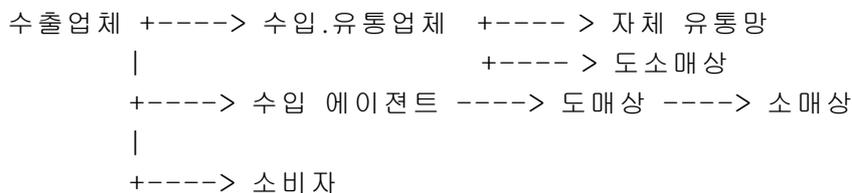
유통마진은 단순 소비재의 경우 수입가격대비 총 100-150% 정도이며 내구성 소비재 또는 공업용 시설재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30-70%가 상례화 되어 있다. 단 에이전트 커미션은 송장가격의 5-10%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수입상이나 디스트리뷰터들은 무역업체보다는 제조업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희망하고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직접대리점을 운영하는 케이스는 없으며 대부분 에이전트 체제이거나 독점 수입상을 두고 있는 상태다. 반면 외국기업들은 현지법인 형태로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시장을 관리하는 케이스가 많다.

과테말라에는 대형 슈퍼체인이 7개정도 대형 쇼핑센터가 12개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체인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상가 지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극빈층은 재래식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라. 수입품 유통구조

수입업체들은 대개 도소매상에 납품하거나 자체 유통망을 갖고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입 에이전트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직접 도소매상에 공급하기도 한다. 수입업체가 직접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형 슈퍼마켓 등과 같이 자체적인 창고 시설과와 판매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유통구조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 물가정보

항 목	기준품목	금액(USD)	품목 내역
식 품 기호품	김치찌개	7	1인분
	햄버거	3.91	맥도날드 빅맥 1개
	수입담배	1.25	말보로라이트 1갑, 20개피
주 택 사무실	고급아파트 월임차료	2,000	150m2/월, Semi-furnished
	중급아파트 월임차료	1,500	150m2/월, Semi-furnished
	사무실 임차료	1,800	150m2/월
교 통 차 량	자동차 2000cc	16,200	한국산, 오토, 에어컨
	시내버스 요금	0.13	1구간
	택시요금	3.75	기본요금
	택시요금	6.25	추가요금, Km당
통 신 전 기	공중전화요금	0.13	시내, 3분
	국제전화(할인)	0.16	현지-서울, 3분
	전기요금	0.14	가정용, 1Kwh
	인터넷 사용료	50	1개월 기본료
교 육	현지 사립학교 수업료	2,125	초등 1년간
	외국인 학교 수업료	9,000	초등 1년간, American School
레저.오락	골프장 그린피	63	비회원, 18홀 1라운드
	영화 관람료	3.40	최신영화, 주중 저녁요금
의 료	병원진료비	31.25	의료보험 제외, 몸살감기, 내과초진
호 텔	특급호텔 숙박료	119.56	할인, 싱글 1박
	중급호텔 숙박료	95.1	할인, 싱글 1박
임 금	사무실비서 월급여	625	초임, 학력불문
	사무실직원 월급여	1000	대졸, 초임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이미 오프라인을 통해서 등록된 협회나 업체들은 현재 인터넷 발달로 대부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 상업 회의소 홈페이지
 - URL: www.negociosenguatemala.com/
- 비전통 품목 수출 협회 홈페이지
 - URL: www.apparel.com.gt/ / www.apparelexpo.com

- 과테말라 건축협회 홈페이지
 - URL: www.cgc.guatemala.org
- 과테말라 공업회의소 홈페이지
 - URL: www.industriaguatemala.com / www.induexpo2005.com
- 과테말라 상업, 공업, 농업, 금융 종합회의소
 - URL: www.cacif.org.gt

나. 오프라인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과테말라 상공 회의소, 과테말라 전경련을 접촉하면 분야별 바이어 리스트가 나오게 되며 과테말라 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주소는 다음과 같다:

- CACIF: (상업, 공업, 농업, 금융 종합 회의소)
 - 주소: Ruta 6, 9-21 Z 4 Edificio de Camara industria 9 nivel
 - 전화: 2331-0651
 - 팩스: 2334-7025
 - 이메일: informacion@cacif.org.gt
- 상업회의소
 - Cá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 10a. Calle 3-80, Zona 1, Guatemala, Centro América
 - Teléfonos: (502) 22535353 - 22324545 - 2326 8888
 - Fax: (502) 22209393
 - E-mail: info@camaradecomercio.org.gt

이외에 매체로서는 전화번호 제작업체(Pagina Amarillo)로서 모든 분야별 바이어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 Publicar 사
 - 5av 5-55, Zona 14 Edificio Euro Plaza Torre 4 5to nivel
 - Tel: 2384-5500
 - Fax: 2384-5550
 - URL : www.publicar.com

이외 전시회를 이용할 수 있다. 2006년 전시회는 다음과 같다:

- 과테말라 국제 박람회 (상업회의소 주최)(VIII Feria Nacional e Internacional de la Camara de Comercio de Guatemala)y
 - 주최: Ca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 URL : www.feriasenguatemala.com
 - Email: info@camaradecomercio.org.gt

- 어패럴 소싱 쇼(apparel Sourcing Show 2006)
 - URL: www.apparel.com.gt / www.apparelexpo.com
 - Email: ccaballeros@apparel.com.gt
- 국제 건축 박람회 (V Feria Inter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 Construcción)
 - URL: www.cgc.guatemala.org
 - Email: eventos@cgc.guatemala.org
- 가구 박람회(Feria de la Industria del Mueble y el Sector Forestal)
 - URL: www.export.com.gt
 - Email: expomueble@agexpront.org.gt
- 식품 전시회(10 FERIA ALIMENTARIA)
 - Tel: (502) 2362-5179
 - Fax: (502) 2362-5181
 - URL: www.cciexpro.guate.com
 - Email: mercadeo@cci.guate.com / info@cci.guate.com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항상 감사합니다(GRACIAS), 안녕하십니까(BUENOS DI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제발-좀 부탁드립니다(-POR FAVOR) 등의 언어가 생활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방문 시는 정장을 갖추는 예의이며 또 대우를 받게 되므로 덤더라도 공식 약속은 넥타이를 갖춘 정장이 일반적이다.

방문 시에는 사전 약속이 원칙이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약속의 경우에는 하루 전날쯤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테말라인의 시간관념은 다소 희박한 편이나 상호 중요한 약속의 경우 시간에 늦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미리 짐작하여 늦게 나가는 등의 태도는 극히 위험하며, 이는 자기와의 거래를 상대가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나. 상담 시 유의사항

첫 대면 시에는 만나서 반갑다,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등으로 반갑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면부터 농담으로 시작하는 것은 불쾌감 또는 경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상담 시는 정장차림이 원칙이며, 상대가 불쾌할 정도로 다리를 꼬거나 의자에 등을 기대서 앉는 등의 태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상담이 시작되기 전에 상담 테이블 위에 샘플이나 카타로그 등 상담자료를 바이어가 보기 쉽도록 lay-out하고 미리 기다리는 것이 좋다.

바이어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 대답하되, 도중에 말을 가로채거나 일방적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등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아 바이어가 요구하는 내용에 정확히 답변할 필요가 있으며, 대충의 추측으로 답변하거나 이해할 경우 추후 거래과정에서 상호간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어 사용을 선호하는 현지인에 대해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상호간 교육 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영어로 대화를 하더라도 간혹 간단한 스페인어를 사용한다면 심리적인 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상대의 요구가 너무 지나치거나 또는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담진행이 안 될 경우에도 상대가 불쾌할 정도로 내색을 하거나 표현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예의 바른 표현으로 정중하게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바이어인 경우 상담과는 별도로 저녁식사 등에 초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 문화적 금기사항

특별한 금기사항은 없으나, 과테말라 내전이나 원주민 등 인종간 갈등문제, 미국 불법체류 중인 중미인 추방문제 등 민감한 정치, 사회상황 또는 특정 종족을 대화의 소재로 삼는 행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과테말라인은 서양식 에티켓에 익숙해 있으므로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어 음식을 먹는 행위, 호텔에서 고추장 등 한국음식을 먹는 행위 등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수입관행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대개 처음은 소량·다품종 오더가 일반적이며 특히 시장조사와 소비자 기호파악을 위한 시험구매가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기대하고 상담에 임할 경우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 다품종도 소화하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국을 공략한다는 자세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테말라 수입업체들 중 상당수는 인근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 등에 판매장 또는 거래선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거래에 만족하지 말고 꾸준한 인내를 갖고 거래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 시 1차적으로 가격을 중시하나 가격이 높더라도 그 이상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고 확신할 경우 거래 제의에 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취급 상품의 장점과 차별성, 경쟁력 등을 부각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첫 거래인 경우에도 신용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통상 D/A 또는 유잔스 90일 이상)이며, 유통단계별 마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의 생산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우리 업체들도 이를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테말라 은행들의 대외신용도는 대체로 미흡한 편으로 미국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L/C 개설 시까지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 거래 시 유의사항

과테말라의 소득계층이 상류와 빈곤층으로 대별 되고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중급 또는 고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으며, 원격지로 인한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 회신 지연, 언어장애 등등으로 시장개척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우리나라와 과테말라간의 정기화물선이 운항되지 않아 해상운임이 주변 남미국가에 비해 매우 비싼 편으로 바이어들은 CIF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CIF 기준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과테말라는 중미의 견본시장 역할을 하고 있어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며, 수입자유화 국가로 원료 및 원자재의 수입관세는 없고 대체로 기계류는 5% 정도의 낮은 관세율을 갖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간 공동관세지역 창설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미각국이 완전한 하나의 관세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한번의 통관으로 상품이 역내자유 유통될 날도 머지 않았다.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약속이나 거래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약속시간을 변경하거나...나중에 보자...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재차 연락하는 등 헛수고를 하게 하므로 성사여부를 미리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 관공서 및 기업체의 일처리 속도는 대체로 늦다는 점을 미리 각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는 경우가 많아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못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이 매우 까다로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 보다는 당장은 양보하지만 차츰 보상받는다는 자세로 상호간의 신뢰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실패사례

○ 의약품 분쟁 사례

- 한국 J 기업과 과테말라의 N 기업간에 분쟁 사례가 있었다. 한국의 J 기업은 과테말라 N 기업과 상품 거래를 맺고 이미 선금까지 받은 상태였으나 제품의 실험이유로 말미암아 1-2년 더 시간을 지체하게 되자 N 기업이 J 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게 되었으며 이 사건의 중재는 1-2년 더 시간이 걸리게 되었으며 사건 결국 J 기업이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손해 배상을 하게 되었다.
- 분쟁의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가 되거나 공장이나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받게 되며 사전에 철저한 신용 조사가 요구된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현지 정착에 필요한 구좌개설, 전화신청, 비자연장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주지를 정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물색할 때는 현지 부동산 소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개료는 임대인이 첫 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기 때문이다. 대체로 여러 곳의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돌아본 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과테말라 시내에서 거주지역으로 ZONA 14 지역과 ZONA 15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는 과테말라의 신시가지인 ZONA 10 등과 가깝고 치안이 우수하며 주변 조경도 훌륭하여 거주지로는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차료가 비싼 편 이어서 선뜻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도 값은 다소 저렴하나 ZONA 9, 10, 13 등에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조용한 곳도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선택 한다. 다만 주택을 고를 때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인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버스정류장 앞이나 측근 등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는 과테말라 시내 공항에서 비행기의 항로나 이착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이 굉장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고급주택의 경우 자동차 차고(1가구당 1-2대)를 갖고 있으며 차고임차료는 주택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은 별도의 차고가 없어 거리에 주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고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주택을 구한다.

FULL-FURNISHED 주택은 거의 없고 주방에 필요한 일부 가구(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만이 비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거실이나 침실 등에 가구를 갖춘 주택이 있으나 임차료를 더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시에 계약인 이외에 1명의 보증인(과테말라인 또는 거주한국인)을 세워 함께 서명해야 하며 첫 달은 해당월 임차료와 1달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DEPOSITO)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전화료, 전기료 등을 공제하고 집 내부 수리비를 공제한 후 돌려준다. 과테말라에서도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 당시의 원상태대로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 시에 벽의 못 구멍이나 흠집, 바닥의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2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 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수수료로 800계찰을 내야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1,000계찰을 더 내야 한다.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는 여행객에 대해 15일 또는 30일, 6개월 비자를 내주고 있다. 여권사본과 변호사 공증(원본 대조필), 재직증명서(영문), 여행사유(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번역본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자수수료는 약 U\$70이다. 현지에서 비자 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Dirreccion General de Inmigracion)의 외국인국(Departamento de Extranjeria)에 가야 한다.

15일 또는 30일 비자를 갖고 입국한 경우 최소한 만료 1주일 전에 여권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주일 내에 90일짜리 비자를 내어준다. 비자수수료로 약 200계찰을 내야하고 비자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로 벌금을 물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90일 비자가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류(Residencia Temporal)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 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과기록표(Antecedentes Policiacos) 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의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도 이다.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Residencia Permanente) 을 신청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Cedula)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신청자격은 과테말라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자라야 하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 체류증 신청 시와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 시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은행구좌 개설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현지화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권과 약간의 예치금을 가지고 가서 구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약 3-4일 내에 계좌 개설 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시 은행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계찰에서 2,000계찰의 구좌개설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좌가 개설되면 수표책을 발급 받아 사용하며 별도로 신용카드 발급을 의뢰할 수도 있다. 다만 신용카드 신청 시는 1명의 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화구좌는 과테말라 국내은행의 경우 일부(BANCAFE 등)를 제외하고는 개설하여 주지 않으므로 과테말라 소재 외국계 은행을 통해 개설하여야 한다. 보통 South Bank(미국 Int'l Bank of Miami 지점)이나 Lloyds Bank 등을 이용한다. 개설 시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여권과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한편 South Bank의 경우 예치금으로 U\$2,000을 내야 한다.

개인수표는 일반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유통되지 않으므로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에 주로 사용된다. 과테말라에서 신용카드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휴일 등 만약을 대비하여 휴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전화가설

과테말라 전화회사(TELGUA)에 여권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가설할 수 있다. 신청 시 약 2,000개찰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하며 기간은 15일에서 30일정도 소요되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라. 자동차구입

인근의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계상 또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기도 한다. 신차의 경우 할부로도 구입이 가능한 데 이 경우 은행거래 증명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차 가격은 비싼 편으로 소형차(예: TOYOTA YARIS) 가격이 대략 1만불 수준이다.

마. 비품 구입

과테말라의 비품은 대부분 미국, 멕시코, 이태리 등지로부터 수입된 관계로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미리 이주 전에 한국에서 이삿짐으로 부칠 물건과 현지에서 구입할 물건을 잘 선택해 둘 필요가 있다. 가구는 PROCERES거리의 전문가구매장(PLAZA DE INMUEBLES)이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므로 이곳을 이용한다. 고가인 만큼 선불리 선택하기 보다는 이곳 저곳을 둘러본 후 충분히 검토하여 구입하는 것이 좋다.

가전제품은 대형 슈퍼마켓인 CEMAC나 전문 양판점인 LA CURACAO, THAT'S HOLLYWOOD 등에서 구입하면 무난하다. 대체로 110V용이나 일부 220V 겸용인 제품도 나오므로 귀국 후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8.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 특성

과테말라는 해안 지방에서부터 최고 4,000미터의 산악지대까지 걸쳐 있어 매우 다양한 기후 조건을 갖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1500미터 이상 고지대는 최고 30/35도, 최저 12/15도, 연평균 18/20도내 외의 온대성 기후를 보여 "상춘의 나라"로 불리기도 하나, 해안지방이나 저지대의 경우에는 최고 35도, 최저 25도, 연평균 28도 내외의 열대성 기후를 나타낸다.

우기는 5월에서 10월 사이로 흐린 날이 많고 하루에 한차례 이상 소나기가 내린다. 과테말라 시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원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00mm내외이며 70-80% 내외의 습도를 나타낸다. 반면 11월-4월 기간은 건기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40-60% 내외의 습도를 보인다.

나. 주요도시의 기후

1) 과테말라 시티

1,500미터의 고지에 위치한 관계로 연평균 기온차이는 크지 않으나, 겨울(12-2월)에는 밤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일교차가 심해 감기에 걸리기 쉽다. 계절은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데, 11월-4월은 건기이며, 5월-10월은 우기로 하루에 한 차례 이상씩 비가 내린다. (현지인들은 우기를 겨울, 건기를 여름이라고 부른다)

2) 출장 시 추천복장

과테말라에서는 아무리 춥다 하더라도 두꺼운 외투는 필요치 않으나, 겨울철(11월-2월)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일교차가 심해 하복 정장의 경우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동복(필요 시 조끼 또는 내복)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름철의 경우는 반팔 티셔츠로 충분하나 우기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간편한 점퍼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고도가 없는 해안가로 내려갈 경우 연중 매우 더운 아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므로 간편한 티셔츠 차림으로도 충분하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5시간으로 과테말라의 아침 9시는 한국의 다음날 밤 12시가 된다. 2006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섬머타임제 실시함.

나. 근무시간

과테말라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의 근무시간은 08:00-17:00이며, 점심시간은 12:00-13:00(또는 13:00-14:00)이 보통이다(일부 기업체의 경우 점심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18:00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관공서의 경우 근무시간은 08:00-16:00시이며, 일부 정부부처의 경우에는 09:00-17:00시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은행 근무시간은 은행 별로 매우 다양한데, 본점의 경우는 보통 08:30(09:00)시에서 18:00시까지 근무하며 일부 은행의 경우 20:00시까지 근무하기도 한다. 한편 지점의 경우는 09:00-15:00시, 또는 09:00-17:00시까지 근무하며, 한편 대 고객 업무는 09:30시부터 개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과테말라의 일부 은행(BANCAFE, BANCO CONTINENTAL, BANCO INDUSTRIAL)은 토요일도 영업을 하는데 근무시간은 대개 09:00-13:00까지 이다.

CEMACO, PAIZ 등 대형 쇼핑센터는 통상 09:00(10:00)시부터 21:00시까지 영업하며, 일반 상점의 경우는 보통 20:00시까지 문을 연다.

식당은 오전 11:00시부터 22:00시까지 영업하며 주말은 23:00시까지 연장하기도 한다.

다. 회계 연도

정부 회계연도는 종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었으나 2005년부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3. 도량형

과테말라에서 사용하는 도량형 치수

무게 단위	환산치
○ 톤	1000 킬로그램, 2204파운드
- 킬로그램	1000 그램
- 리브라 (Libra)	0.45 킬로 그램(파운드)
- 킨탈(Quintal)	100파운드
○ 길이 단위	
- 미터	100센티미터
- 야드	91센티미터
- 빼에(Pie, 피트)	30센티미터
- 볼가다(볼가다, 인치)	2.5센티미터
○ 부피 단위	
- 갤런	3.78 리터
- 리트로(리터)	0.26 갤런

4. 출입국/비자

가. 비 자

2004년 4월1일부터 1-3개월간의 비자는 필요 없으며, 3개월이 지날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다. 과테말라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이민 청에 출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바로 연장 가능하다. 거주비자는 현재 취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6개월 가량 소요)

1) 국 내

-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614
- 전화: 771-7282/3, FAX: 771-7284

2) 해 외

- 기관명: 이민청(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
- 주소: 41 CALLE, 17-36, ZONA 8, GUATEMALA, GUATEMALA C.A
- 전화: 2475-1384(대표전화), FAX: 2475-1384(전화 겸용)
- 서류신청시간: 08:00-16:30
- 소요비용: US\$16

나. 노동허가

외국인 고용시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과테말라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내 노동국(Dirección General de Trabajo)에 신청한다. 신청서류는 여권사본, 업주의 재정정보증서, 해당기술증명서(노동부지정 검정기관 발행), 최종 거주국의 무범죄 증명서(신원 증명서), 스페인어 어학능력증명서, 내국인 근로자 훈련 계획서 등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한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하며,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노동부의 업체실사나 미국바이어의 공장 Inspection시에 근로자의 노동허가 취득여부를 따지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허가 취득은 필요하며 따라서 과거 노동국이나 이민국 퇴역관료 등 선이 달는 인사를 통해 수속을 진행하기도 한다.

다. 출입국 절차

출입국에 특별한 절차는 없으나, 출(입)국시에 기내에서 나눠주는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 하고 심사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출국 시는 외교관 여권소지자가 아닌 한 1인당 US\$30의 공항세를 항공사 창구에서 납부하고 인지를 구매해야 하며 출국 심사대에 제출, 날인을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 국제공항(La Aurora) 입국 시 절차는 아래와 같다.

비행기에서 내려 통로를 따라 나오면 Migration 창구가 나타난다. 여권과 비자, 기내에서 작성한 입국서류 양식을 제시하면 통과된다. Migration을 통과한 후 문밖으로 나오면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짐을 찾을 수 있는 컨베이어나 있음. 짐을 찾은 후 앞으로 나오면 세관(Aduana)이 보이는데 기내에서 작성한 신고서 양식을 제출하고 간단한 검사를 마치면 통과된다. 세관을 지나 나오면 좌·우측에 은행이 있으므로 미리 적정액을 현지화(캐탈)로 환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은행이 닫혀 있으면 공항출구(유리문)로 나와 오른쪽 계단을 이용,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은행(Banco de Quetzal)이 있다.

공항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기사에게 호텔명만 말해주면 찾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혹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주소도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5분 내외의 가까운 거리이다. 택시에 보통 미터기가 없으므로 요금을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보통 시내주요 호텔이나 무역관까지 요금은 대략 40-50 캐탈(5달러-6달러) 정도이다. 따라서 처음에 40캐탈(꾸아렌따 캐탈)을 부르고 더 달라고 하면 50캐탈(싱꾸엔따 캐탈-6달러)선에서 타협하면 된다.

현재 공항 리 모델링 작업으로 인해 많은 혼돈이 있음.

1) 휴대품 통관 시 제한사항

휴대품은 여행자용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류 2병 이상, 담배 2보루 이상 시 세금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여행자 물품으로 전자제품 등 상업적 가치가 있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추징(종전 대비 세관행정 대폭 강화됨)하고 있다. 특히 파나마 이남, 특히 콜롬비아 등지에서 입국하는 경우 마약단속 목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로우며 때로는 마약견 검사까지 받을 경우도 있다.

2) 방역관계

법적으로 특정 예방주사를 맞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단, 현지 실정상 콜레라, 말라리아, 수두, 황열병 등에 대한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특히 수도권외의 지방여행을 희망할 시 필요)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화폐단위는 케찰(Quetzal)로서 약칭은 Q이며, 1케찰은 100센타보(Centavos)이다. 지폐는 5, 10, 20, 50, 100케찰이 있으며, 주화는 1, 5, 10 25센타보와 1케찰로 되어 있다.

나. 환율

환율은 '90년 평균 환율이 1불당 4.50786케찰에서 매년 상승세를 보여 '97년 6.06368케찰, '98년 6.40492케찰을 기록 하였다. 2000년 이후부터는 수출부진에 따른 외환 유입액 감소와 국제 외환유동성 위기 등의 영향으로 환율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2000년 말에 7.73케찰, 2001년말 7.98케찰을 기록하였다. 정부의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개입으로 부분적인 등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7.63케찰을 나타내고 있다.

다. 환전

공항 내 은행이나 호텔 근처의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환율상 유리하며, 호텔비 지급도 현지화 (Q 케찰)로 지급하는 것이 다소 경제적이다. 과테말라 공항에는 세관을 통과하여 나오면 좌우측으로 은행이 있으며, 만약 문이 닫혀있는 경우에는 출구로 나온 후 우측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오른쪽에도 은행(BANCO DE QUETZAL)이 있다.

환전시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환전수수료는 없다. 또한 공항 출국 시에는 쓰고 남은 케찰을 출국장인 공항 2층 은행(BANCO DE QUETZAL)에서 달러로 재 환전 할 수 있다.

6. 교통/통신

가. 우리나라와의 교통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항 항공편은 없으며, 미국의 L.A, 마이애미, 뉴욕 및 멕시코, 파나마 등지에서 여러 경로로 비행기편을 이용할 수 있다. 과테말라시티의 아우로라 공항에는 UNITED, CONTINENTAL, AVIATECA, TACA, COPA, SAM, MEXICANA, LACSA 등 14개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으며, 통상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직행으로 약 5시간, 마이애미나 멕시코 에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요금은L.A에서는 할인요금이 \$600 내외이며, 마이애미 에서는 \$420 내외수준이나 시즌 별로 또 항공사별로 차이가 크며 정상요금은 L.A구간이 \$750불 내외, 마이애미 구간이 \$550내외(세금포함)이다.

나. 국내교통

1) 택시·렌터카

국내에서는 치안불안 및 간혹 발생하는 외국인 피습사건 등을 대비 택시나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도 일반 택시보다는 콜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가격은 비슷하다. 택시요금은 승차 전에 협상을 해야 하는데 공항에서 유명호텔까지는 \$5-6 수준이며 시외로 나갈 때는 거리 별로 협상을 해야 한다. 시내에서 이동 시는 대부분 \$10 내외 수준이다. 한편 AVIS, BUDGET, DOLLAR, AHORRENT 등 렌트카숍이 많이 있으며 경승용차부터 왜건, 4WD까지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2) 시내 대중교통

과테말라의 시내버스 요금대에 따라 1.25계찰과 2계찰(야간요금)의 두 종류가 있다. 1.25 계찰 버스는 대체로 노후화되어 이용을 권장키 어려우나, 1계찰 버스는 최근 신형 버스로 비교적 깨끗해 이용할 만 하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급적 버스는 이용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야간에 임의 이동 또한 위험도가 높다. 최근에는 많이 줄어 들었으나 버스 내에서 강도사건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가급적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전트나 기타 동반자와 동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 사정은 과테말라 국내 총 연장거리가 26,429Km인데 반해 포장도로는 2,869Km내외로 도로 포장율이 11%에 불과하다.

다. 통신

국내 편지 우편 요금은 U\$0.5 정도하며, 국제 우편 요금은 U\$1.5-U\$2정도이다. 특배 운송의 가격은 일반 소포일 경우 한국까지 약 U\$ 40-50정도이며, 주로 사용되는 특배 회사는 DHL, UPS, FEDEX등이다. 이용 방법은 단순히 전화로 요구하면 방문하여 서비스해 준다. 국내 전화 요금은 1분당 U\$0.04 이며, 국제전화는 1분당 미국의 경우 U\$0.10 이며 한국의 경우 1분당 U\$ 1.00정도 한다. 국제 전화 거는 방법은 147, 혹은 143을 누르고 00을 누른 다음 국가 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를 누르면 된다.

7. 호텔/식당

가. 호텔

외국인은 신변 안전상 최소한 3등급 이상 호텔에 투숙하는 것이 안전하며, 가급적 신 도심지(ZONA 9, 10) 소재 호텔이 바람직하다. 한편 유학 등을 목적으로 3-4개월 이상 장기간 투숙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형 호텔도 권할 만 하다.

○ CAMINO REAL

- ADD: AVE. LA REFORMA Y 14 CALLE, ZONA 10
- TEL: (502)23334633
- FAX: (502)23374313
- 가격: 싱글 및 트윈 \$104(세금 22% 및 조식 포함, 무역관 예약 시)

- QUINTA REAL
 - ADD: KM 9 CARRETERA AL SALVADOR, GUATEMALA
 - TEL: (502)23655050
 - FAX: (502)23655051
 - 가격: 싱글 및 트윈 \$104(")
- INTER-CONTINENTAL
 - ADD: 14 CALLE 2-51, ZONA 10, GUATEMALA
 - TEL: (502)2379-4444
 - FAX: (502)2379-4445
 - 가격: 싱글 및 트윈 \$110(")
- CLARION SUITES
 - ADD: 14 calle 3-08, ZONA 10
 - TEL: (502)23633333
 - FAX: (502)23633303
 - 가격: 트윈 및 싱글 \$95(")
- MARRIOTT
 - ADD: 7A AVENIDA 15-45, ZONA 9, GUATEMALA
 - TEL: (502)2331-7777
 - FAX: (502)2332-1877
 - 가격: 싱글 및 트윈 \$104(")
- HYATT REGENCY (GRAN TIKAL FUTURA HOTEL)
 - ADD: TIKAL FUTURA, CALZADA ROOSEVELT, 22-43, ZONA 11, GUATEMALA
 - TEL: (502)2440-1234
 - FAX: (502)2440-4050
 - 가격: 싱글 및 트윈 \$80(")
- PRINCESS REFORMA
 - ADD: 13 CALLE 7-65, ZONA 9
 - TEL: (502)23344545(PBX)
 - FAX: (502)23344546
 - 가격: 싱글 및 트윈 \$80 (")
- MELIA GUATEMALA
 - ADD: AVENIDA LAS AMERICAS 9-08, ZONA 13
 - TEL: (502)2339-0676
 - FAX: (502)2339-0690
 - 가격: 싱글 및 트윈 \$80 (")
- RADISSON
 - ADD: 1a. AVE. 12-46, ZONA 10
 - TEL: (502)23329795/223329797
 - FAX: (502)23329772/23329770
 - 가격: 싱글 및 트윈 \$80(")

- STOFELLA
 - ADD: 2a AVENIDA 12-28, ZONA 10, GUATEMALA
 - TEL: (502)2339-1879
 - FAX: (502)2331-0823
 - 가격: 트윈 U\$67, 싱글 \$61 (")

- HOLIDAY INN
 - ADD: 1a AVENIDA 13-22, ZONA 10, GUATEMALA
 - TEL: (502)2332-2555
 - FAX: (502)2332-2584
 - 가격: 싱글 및 트윈 \$67 (")

□ 아파트형 호텔

- APART HOTEL SUITES REFORMA
 - ADD: AVE.REFORMA 12-51, ZONA 10
 - TEL: (502)23343280(PBX)
 - FAX: (502)23315557
 - 가격: 싱글 및 트윈 \$61 (장기체류 시 별도 할인)
- APARTAMENTO LAS TORRES
 - ADD: 13 CALLE 0-43, ZONA 10
 - TEL: (502)2332-0536
 - FAX: (502)2331-4628
 - 가격: 콘도형 U\$55/월, 보통객실 U\$37.5/월 (장기체류 시 가격 네고 가능)

나. 식당

□ 한 식

- 정원
 - 주소: 12 CALLE 2-27,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62-9967 / 2362-9963
 - 갈비, 안창살, 삼겹살 등
- L.A. 숯불집
 - 주소: 3 AVENIDA 11-41,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34-1004
 - 갈비 전문
- 순풍식당
 - 주소: 32 AVENIDA 1-34, ZONA 7, GUATEMALA
 - 전화: (502)2433-1995
 - 순대국밥, 머리고기, 설렁탕, 야채불고기 등

- 식당 아씨
 - 주소: 몬떼마리아내 한인상가
 - 전화: (502)2479-1118-9
 - 치마보쌈, 김치보쌈, 아구탕, 해물탕 등
- 노다지식당
 - 주소: CALZADA MATEO FLORES 2 CALLE 38-81, ZONA 7, GUATEMALA
 - 전화: (502)2439-2512
 - 우족탕, 해물탕, 육개장 등

□ 중 식

- LAI LAI
 - 주소: 12 CALLE 5-27,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31-6507/2334-4988
 - 한국인 기호에 맞는 중국요리
- 帝苑酒家(JADE ORIENTAL)
 - 주소: 12 CALLE 6-42,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31-1429
- RESTAURANTE MONGOLIA
 - 주소: AVENIDA LAS AMERICAS 2-50, ZONA 13, GUATEMALA
 - 전화: (502)2345-589
 - 징기스칸식 부페요리
- 중국성
 - 주소: 16 CALLE 7-52,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62-5172 / 5173
 -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국요리집. 짜장면, 짬뽕 등

□ 양 식

- KACAO
 - 주소: 2a AVENIDA 13-44, ZONA 10, GUATEMALA
 - 전화: (502)2337-4188
 - 과테말라 전통요리
- LA MEDIA CANCHA
 - 주소: 13 CALLE 04-71, ZONA 9, GUATEMALA
 - 전화: (502)2331-6463
 - 스테이크 전문

- HACIENDA REAL
 - 주소: 13 CALLE 1-10, ZONA 10, GUATEMALA
 - 전화: (502)2333-5408/9, 368-1168
 - 스테이크 전문
- MONTANO STEAK HOUSE
 - 주소: 12 CALLE 3-28, ZONA 10, GUATEMALA
 - 전화: (502)2332-6832
 - 스테이크 전문
- DONOSTI
 - 주소: 13 CALLE 2-75, ZONA 10, GUATEMALA
 - 전화: (502)2334-3884
 - 스페인요리 전문
- TRE FRATELLI
 - 주소: 2DA AVENIDA 13-25, ZONA 10, GUATEMALA
 - 전화: (502)2366-3168
 - 스파게티 등 이태리 요리

8. 관공서 관행

가. 민원 처리기간

현 정부 들어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 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 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내외에서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고 보면 된다.

무비자 협정으로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으나, 연장 시 이민청에서 즉시 발급 해 주고(16\$) 거주비자의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리며,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받는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는데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계약 체결 시 등에 필요한 변호사의 공증 등은 소요기간이 들쭉날쭉한 것이 현실이다. 공증 인 사무실내에 다른 서류에 밀려 오래 대기상태로 남을 경우 몇 달씩 소요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급한 서류인 경우에는 본인이나 담당직원 인편으로 직접 서류를 전달하여 가급적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요령이다.

나.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인종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객의 옷차림이나 태도, 사회적인 지위 등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공서를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정장 또는 단정한 차림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의에 벗어나는 듯한 언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대체로 원칙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억지를 쓰거나 애원하듯 부탁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별로 없으므로 그 원인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일반 민원창구가 아닌 담당공무원 면담 등의 경우 사전약속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3-4일 전에 시간을 정하도록 하며, 약속한 경우에도 간혹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약속인 경우는 출발 전에 컨펌하는 것이 좋다.

9. 공휴일

가. 공휴일 지정방식

전국 공휴일과는 별도로 주 별 또는 도시 별로 별도의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부활절을 제외하고는 공휴일이 몇 월 몇 일 식으로 매년 동일하다.

2006년도 공휴일 지정표

공휴일명	일자
신정	1/1
부활절	4/12-14(매년 변경됨)
노동절	5/1
성모승천일	8/15(과테말라시티만 해당)
국군의날	6/30
독립기념일	9/15
혁명기념일(1944년 혁명)	10/20
만성절(한식)	11/1
성탄절	12/25
연말휴가	12/31

주: 12.24(NOCHEBUENA) 및 12.31은 정규 공휴일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전일 휴무 또는 오후 휴무함.

나. 출장 지양기간

매년 부활절 주간(Semana Santa)은 관공서, 은행, 기업체 등 모두가 휴가에 들어가며, 일부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1주일 전체를 휴무하기도 한다.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과테말라의 휴가철로서 각 기관에서는 15일 내외의 휴가를 떠나므로 현지 연락이나 접촉은 거의 불가능하며, 동 기간 중 항공편 예약도 피크를 기록 한다.

10. 여행시 유의사항

가. 의복준비

과테말라는 해발 0미터에서 최고 4000미터까지 분포되어 있어 기후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여행지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과테말라 시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경우 해발 1500미터의 고지로서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으나 겨울(11월-2월)철에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나타내므로 동복 정장 또는 스웨터, 조끼, 점퍼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전기규격

주파수는 60Hz로 한국과 같으므로 사용에 문제가 없으나, 가정용기기의 전압은 110V로서 220V제품은 변압기가 있어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 산업용으로는 120, 240, 440V을 사용한다. 또한 전압이 불안정해 전압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단전이 자주 일어나므로 UPS를 많이 사용하며 가정에서는 양초를 상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여행여건

1) 치안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좋아졌으나 아직도 치안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므로 초행자는 주간 이든 야간이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하며 시골여행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습격이나 강탈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가끔 시골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 이 피습당하는 일이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재래식 시장이나 구 도심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

또한 여행시 귀중품을 다수 소지하거나 달러화를 다량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하다. 시내 이동시는 호텔에서 주선해 준 택시를 이용하되 시외, 시내 버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도 공동거주 주택의 경우 경비원이 상주하므로 안전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다소 취약한 편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트카로 여행시도 야간이동은 가급적 삼가기 바람, 가급적 현지인 동행 또는 안내인이 동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응급

국번 없이 125 또는 128을 누르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병원은 개인의원 중에도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우수한 의원진이 있으며 종합병원으로는 AURORA, HERRERA, PILAR, CENTRO MEDICO등은 신뢰할 수 있다. 대체로 상류층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편이다(예: 간단한 종기수술비가 \$1,000 내외 청구됨). 현지 의료보험은 DEDUCTION이 진료 매 건당 \$300 내외로 의료보험으로서의 가치가 유명 무실하며 대형사고시나 유효한 형태 이다.

간단한 두통, 소화제, 감기약 정도는 처방전이 없이도 가까운 약국(Farmacia)에서 구입 가능하며 의약품 수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나 \$10-30로 비싼 편이며, 호텔 투숙 시는 호텔에서 구급약을 지원받거나 리셉션 데스크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한의원도 4곳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의원은 다음과 같다.

○ 선린의원

- 주소: CALZ.AGUILAR BATRES 43-35, ZONA 12, COMERCIAL MONTE MARIA, LOCAL 1 GUATEMALA
- 전화: (502)479-1116

○ 송림한의원

- 주소: CALZ.AGUILAR BATRES 43-35, ZONA 12 COMERCIAL PLAZA MONTE MARIA GUATEMALA
- 전화: (502)479-1112 / 야간응급전화: 476-6164 (H/P 203-1983)

○ 동서한의원

- 주소: 30 AVENIDA 6-30, ZONA 11, RESIDENCIAL 5 (CANAL 3 방송국 옆)
- 전화: (502)439-5029

3) 팁 관행

모든 부문에서 팁이 완전히 보편화된 것은 아니나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는 팁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항에서 수하물용 카트와 짐을 운반해 주는 경우 약 U\$1 정도의 팁이면 되며, 호텔에서는 경우에 따라 US\$ 1-2 수준, 일행이 많을 경우도 US\$5 내외면 적당함. 음식점에서는 식대에 비례하여 US\$ 50-60미만은 10%, US \$100이상은 5% 내외면 적당하며, 택시의 경우에는 US\$ 1 미만의 잔돈을 남기면 충분하다. 한편 일부 식당의 경우 서비스료로 10%를 추가하여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다.

4) 식수

과테말라의 물은 석회질이 함유되어 있어 식수로는 적합치 않으며 따라서 끓여서 마시거나 생수(미네랄워터)를 구입해 마시는 것이 좋다.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물을 무료로 제공하나 특별히 생수를 주문하면 돈을 내야 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통 생수를 배달하여 마시는 것이 보통이다.

5) 이발소

한국인이 운영하는 이발소도 6곳 정도가 있으며, 현지인 이발소는 보통 남녀 구분이 없는 UNISEX가 일반적이며 요금은 업소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30-40계찰 선이며 다소 비싼 곳은 80계찰까지도 한다. 이발 전후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값은 다소 올라 간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요 이발소는 아래와 같다.

○ 머리방 소피아

- 주소: 16 CALLE 7-52, ZONA 9, GUATEMALA
- 전화: (502)362-7890/7891

○ 한양 미용실

- 주소: 2 CALLE 35-78, ZONA 7, GUATEMALA
- 전화: (502)439-2715

○ 에바 미용실

- 주소: 4 CALLE 32-79, ZONA 11, UTATLAN 2, GUATEMALA
- 전화: (502)594-7664

6) 구두닭이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구두닭이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가격은 보통 3께찰 정도로 싼 편이다.

구두만을 전문적으로 닭는 샵은 없으며 대개가 거리에서 잠깐 시간을 내어 구두를 닭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쇼핑

1) 물가

과테말라의 물가는 결코 만만치 않다. 서울의 물가와 비슷하거나 일부 품목의 경우 더 비싼 경우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쇼핑장소

과테말라 시내에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해당하는 쇼핑센터는 없고 대부분 대형 하이퍼마켓 형태로 운영된다. 현지의 대표적인 쇼핑센터는 CEMACO, PAIZ, LA TORRE 등이며 그 외에도 약국 체인점인 MEYCOS, 향수전문 체인점인 KLEE, 가정용품 체인점인 HOME CENTER 등이 있다. 품목별 전문 체인점의 경우에도 품목의 제한 없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테말라의 구도심(ZONA 1)지역에는 민예품, 토산품 등을 파는 메르까도가 있으며, 기타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파는 재래시장도 발달해 있다.

또한 한국인을 위한 대형식품점이 4곳, 반찬백화점, 베이커리 등도 있어 식품조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격은 한국의 약 2배 이상으로 비싼 편임. 현지 주요 한국슈퍼마켓, 잡화점, 반찬가게는 아래와 같다.

○ 한양슈퍼

- 주소: 36 AVENIDA 0-37, CALZADA ROOSEVELT, GUATEMALA
- 전화: (502)2431-2090 / 1477

○ 다솜 종합슈퍼

- 주소: 2A CALLE 34-38, ZONA 7, GUATEMALA
- 전화: (502)2599-6660

○ 플라자마켓

- 주소: 37 AVENIDA 2-15, ZONA 7, COL. EL RODEO, GUATEMALA
- 전화: (502)2433-9015/23

○ 보물창고

- 주소: ANILLO PERIFERICO 22-29, ZONA 11, GUATEMALA
- 전화: (502)2473-8264 / 473-8222

3) 특산품

과테말라의 특산품 중 대표적인 것은 커피로서 최대 수출품 이기도 하다.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다양한 편이나, 비교적 값은 싼 편이어서 283g짜리 인스턴트 INCASA 커피의 경우 약 32개찰 수준이다.

인디오 여자들이 손으로 직접 짠 우이필(블라우스)나 수직 테피스트리, 테이블보 등도 대표적인 특산품인데 다양한 색상으로 화려하게 수 놓은 것이 특징이다. 면으로 짠 것 보다는 양모로 짠 것이 더 비싼데 가격은 싸게는 10개찰부터 600개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 외에도 마야의 문양으로 조각한 목각, 석재, 금속 인형과 가면, 테라코타 등도 많으며 특히 과테말라의 옥석(현지어로 하데(JADE))을 가공하여 제작한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 인형, 마스크 등도 유명한데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11. 유용한 연락처

가. 비상연락처

현지 비상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국번 없음).

- 화재신고: 122/123, 엠블런스: 125/128, 범죄신고: 110/120, 마약사범신고: 1577, 소비자안내: 1544, AIDS 신고: 1540, 전화고장신고: 1566, 기상예보: 331-4967

나. 현지 관공서

- 과테말라 외무부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 주소: 2 avenida 4-17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2348-0000
- 과테말라 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ia)
 - 주소: 8 avenida 10-43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238-3330
 - 인터넷주소: www.mineco.gob.gt
- 과테말라 관광청 (INGUAT)
 - 주소: 7 AVENIDA 1-17 ZONA 4 Centro Civico, Guatemala C A
 - 전화: (502) 2331-1333/9
 - 인터넷주소: www.guatemala.travel.com.gt, www.espiritumaya.com.gt
- 과테말라 재무부 (Ministerio de Finanzas)
 - 주소: 8 avenida y 21 calle zona 1 centro Civico, Guatemala C A
 - 전화: (502) 2251-1333
 - 인터넷주소: www.minfin.gob.gt

- 과테말라 관세청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 주소: 8 avenida y 21 calle zona 1 Centro Civico, Guatemala, C.A.
 - 전화: (502) 2253-1193

다. 은행

현지 주요은행은 아래와 같다.

- BANCAFE
 - 주소: Avenida Reforma 9-30 Zona 9 Ed. Torre del Pais, Guatemala, CA
 - 전화: (502) 2331-1311
 - E-mail: Bancafe@Bancafe.com.gt
 - Website: www.bancafe.com.gt
- Banco Continental G &T, S.A.
 - 주소: 6 avenida 9-08 Zona 9 Plaza G & T Continental, Guatemala, CA
 - 전화: (502) 2338-6801/338-6838/338-6868
 - E-mail: gf@email.continet.com.gt
 - Webpage: www.gytcontinetal.com.gt
- Banco de Occidente, S.A.
 - 주소: Quetzaltenango 4 Calle 11-38 Z 1
 - 전화: (502) 2761-2861
 - Email: occidente@occidente.com.gt
 - Website: www.occidente.com.gt
- Banco Industrial, S.A.
 - 주소: 7 avenida 5-10 Zona 4 Torre I Edif. Centro Financiero,
- Guatemala C A
 - 전화: (502) 2334-5111
 - E-mail: luislara@pronet.net.gt
- Banco Internacional, S.A.
 - 주소: Avenida Reforma y 16 calle 0-55 Zona 10, Guatemala, C.A.
 - 전화: (502) 2366-6666
 - E-mail : binter60@gua.gbm.net
 - Website : www.bcointer.com.gt

라. 경제단체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CA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 주소: 10 Calle, 3-80, Zona 1, Guatemala, C.A.
 - 전화: (502) 2253-5353
 - 팩스: (502) 2251-4197

- 인터넷주소: www.guatemala-chamber.org
- 상세정보: 수출입 업자 단체
- 과테말라 공업회의소 (CA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 주소: Ruta 6, 9-2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34-0849 / 334-1314
 - 팩스: (502) 2334-1318
 - 상세정보: 제조업자 단체
- 비 전통상품 수출조합 (GREMIAL DE EXPORTADORES DE PRODUCTOS NO TRADICIONALES)
 - 주소: 15 Ave. 14-72, Zona 13, Guatemala, C.A.
 - 전화: (502) 2362-2002
 - 팩스: (502) 2362-2002
 - 상세정보: 섬유제품 등 비 전통상품 수출조합으로 무역협상, 수출 진흥 및 쿼터 관리 등 담당
- 경영자협회 (AGG: ASOCIACION DE GERENTES DE GUATEMALA)
 - 주소: 6a Ave. 1-36, Zona 14, Guatemala, C.A.
 - 전화: (502) 2367-4995
 - 팩스: (502) 2367-5006
 - 상세정보: 경영인을 위한 정보센터 및 대정부 로비활동
- 전국 경제인 단체 연합회(CACIF: COMITE COORDINADOR DE ASOCIACIONES AGRICOLAS, COMERCIOS, INDUSTRIAS Y FINANCIERAS)
 - 주소: Ruta 6, 9-21, Zona 4, Guatemala, C.A
 - 전화: (502) 2332-1794
 - 팩스: (502) 2334-7025

마. 한국기관 및 주요단체

-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
 - 주소: 5ave. 5-55z.14 Edificio Europlaza,Torre 3, Nivel 7
 - 전화: (502) 2353-0251-0256
 - 팩스: (502) 2353-0259
- KOTRA 과테말라 한국무역관
 -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 ATLANTIS OF. 605, GUATEMALA, GUATEMALA
 - 전화: (502)2367-2347/48/49
 - 팩스: (502) 2367-2350
 - E-MAIL : kotra1@newcomgua.com
- 기타 주요단체
 - 한인회(회장 양일권) TEL: (502)2476-2028
 - 과테말라 섬유산업 협회(회장 채임덕) TEL: (502)6631-4411
 - 한글 학교(교감 임삼균) TEL: (502)2361-3221/442-3297

- 부인회(회장 최화옥) TEL: (502)2232-2350/476-2397
- 자영회(회장 송태백) TEL: (502)2254-5720
- 평통위원 김용덕 TEL: (502)2251-5165
- 채임덕 TEL: (502)2633-1559
- 한인 천주교회(신부 김무웅) TEL: (502)2594-3752
- 한인 교회(목사 김상돈) TEL: (502)2485-7093/4/6
- 사랑의 교회(목사 이종석) TEL: (502)2442-4156/3044/4320
- 평강교회(목사 변홍근) TEL: (502)2476-1330
- 주님의 교회(목사 민병문) TEL: (502)2477-2983
- 다메셋 선교교회(목사 김기택) TEL: (502)2592-6943
- 한과 정보(대표 김덕일) TEL: (502) 2592-4641
- 신길교회(목사 조성출) TEL: (502)2337-2147
- 한인일보(대표 박활) TEL: (502) 2479-1121

12. 관광명소

가. 과테말라 시내 관광명소

구도심인 ZONA 1 지역에는 상점가, 영화관 등이 밀집되어 있어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이중 중앙공원 주변은 중앙정부청사(PALACIO NACIONAL), 까테드랄(CATEDRAL), 민예품 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시내 남쪽에 위치한 아우로라 공원은 숲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민예품시장, 동물원, 박물관 등이 있어 하루를 보내기에 적합하다. 이외에도 국립고고학 박물관, 뽀뽀 부 박물관, 익스첼 민속의상 박물관 등에서는 마야문명과 인디오의 생활상을 볼 수 있어 방문해 볼 만 하다.

나. 시외 관광명소

□ 안티구아

과테말라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안티구아는 1543년 스페인 침략기에 건설된 과테말라의 옛 수도로서 1773년 대지진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 폐허가 되었으나 과거 스페인 식의 교회나 성당 등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고대 도시이다.

주요 유적지로는 중앙공원에 있는 까테드랄과 샌프란시스코 교회, 산타클라라 수도원, 산토도밍고 교회(지금은 호텔) 등이며, 박물관으로는 무기박물관, 고서박물관, 민속음악 박물관, 식민지박물관 등도 있다.

□ 아띠틀란 호수

과테말라 시티에서 북쪽으로 147Km 거리에 있는 이 호수는 해발 1,562m에 위치하고 주변에 3,000m급 이상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인디오의 마을들이 많이 있어 시간을 내어 둘러보기 좋은 곳이다.

호반에 위치한 주요 도시는 빠나하첼, 솔롤라, 산타까타리나빨로뽀, 산 안또니오빨로뽀, 산티아고 아띠틀란 등으로 인디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인디오들이 수놓은 아름다운 색상의 우이필 및 목각 등 토산품 등을 볼 수 있다.

□ 띠칼

과테말라시 북쪽 빼뎀주에 위치한 최대의 마야유적지이며, 마야문명의 진수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과테말라시에서 버스로 12-14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므로 항공편으로 다녀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야유적지는 20-30미터 높이의 정글 속에 묻혀있는데 약 16Km의 공간에 3,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건조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유적지로는 그란 플라자, 1, 2, 3, 4, 5호 신전, 사우스아끄로폴리스, 센뜨랄아끄로폴리스, 7개 신전의 광장, 잊혀진 세계, 비명의 신전, 박쥐의 궁전, 노스아끄로폴리스 등으로 매우 많다.

띠칼 관광은 보통 플로레스시를 기점으로 시작하며, 그 외에도 주변에 산따엘레나, 산베 니또 등의 도시도 있다.

□ 리오둘세

과테말라 북쪽 이사발호수 인근에 위치한 리오둘세는 천혜의 원시림과 자연풍경을 간직한 곳으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 중의 하나이다. 주변에 이사발호수, San Felipe 성, 카리브 해에 접한 리빙스톤 등은 방문해 볼만 하다.